**발제**

* **영화의 첫인상이 어땟는지 한, 두줄로 적어주세요.**

* 
* **왜인생의 한 파트를 '버스타기'라고 표현했을가요?**

* **왜 The pursuit of happyness (Not happiness) 라고 표현했는지 생각해보세요.**

* **주인공 크리스의 말에 They all looked so damm happy to me, Why couldn't I look like that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초입) 감독이 어떤 느낌을 나타내고자 했을가요?**

* **어떤 아저씨가 골밀도 측정기를 타임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요?**

* **아들이랑 농구하던 크리스는 아들에게 꿈을 가지고 그걸 보호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빠 자신까지도 그걸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상과 현실의 대립사이에서 꿈을 지킬 수 있나요?**

* **영화에선 Happiness is something that we can only pursue and maybe we can actually never have it. 동의하는지 않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함께 말해주세요.**

* **만약 당신이 왜 인터뷰에 셔츠를 입지않고 왔다면, 어떻게 말할 건가요?**
  + **Ex : chris는 그는 아마 아주 멋진 바지를 입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 **영화에서는 주인공(크리스)이 아들(크리토퍼)를 위해 여러 행동이나 말들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빠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자신도 공감하는 부분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부분을 말해주세요.**

* **자신의 삶의 한 파트가 버스타기에서 행복으로 바뀝니다. 어떤 변화 때문에 바뀐건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영화속에서 삶의 한 부분을 버스타기 멍청한 짓 행복 등으로 묘사하는데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할까요?**

**-------------영화 이외의 파트----------------**

*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 **자신의 직업적 꿈이 아닌 장래의 꿈은 무엇인가요?**
  + **개인적으로 직업적 장래희망을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사회에서 직업이 아닌 이상적인 꿈이나 목표등을 물어보고싶어서요...**

**근황토크**

* ㄱㅈㅎ : 제주도여행이 최고였지만 ..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 아쉬움 ㅠ
* ㅅㅈㅅ : 맥날에서 필터링 배우고 .. 학교특강이 끝나서 푹쉼
* ㅇㄷㅎ : 슬라임에 빠져서 새론 채널을 만들어서 앞으로 영상제작예쩡
* ㅈㅎㅅ : 태국 , 일본여행하면서 푸우우욱 놀고…취준중 ~
* **영화의 첫인상이 어땟는지 한 , 두줄로 적어주세요 .**
* ㅅㅈㅅ : 치열한 소시민들 생활이 우울해보임
* ㅈㅎㅅ : 크리스토퍼가 너무 귀여웠다
* ㅇㄷㅎ : 자기상황과 공감이 잘 되어 선물 받는 느낌
* ㄱㅈㅎ :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시간대에서 있구나…
* ㅇㅈㅇ : 일상의 소중함과 인턴과 어바웃타임의 느낌이 복합적 !
* **왜 인생의 한 파트를 '버스타기 '라고 표현했을가요 ?**
* ㅇㄷㅎ : 종착역이 있듯이 .. 추락하는 종착역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끝을 향해 달 려가는 것, 다른 버스를 타면 다른 종착역으로 감
* ㄱㅈㅎ : 인생에 있어서 버스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고 그 버스를 타는 것은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표현
* ㅈㅎㅅ :행복을 향해 가는 여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표현.
* ㅇㅈㅇ : 버스를 맨날 타는 일상을 표현, 반복되는 일상이였기 때문에 .. 버스탄다고 표현하지 나오지 않았을까 ?
* **어떤 아저씨가 골밀도 측정기를 타임머신이라고 부릅니다 .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요 ?**
* 다들 어려워함 ㅠㅠ
* 측정기를 보고 옛날의 자기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 그리고 ’진짜 타임머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생각하게 해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노숙자와 주인공이 반대적으로 .. 같은 황금과거가 있음에도 주인공은 진취적이지만 노숙자는 그 과거에 머물러있는…
* **왜 The pursuit of happyness (Not happiness)라고 표현했는지 생각해보세요 .**
* 행복이랑 행복한 사이의 단어를 쓰면서 행복인지 행복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생각 ...
*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을 추구하란 의미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 지금이 행복하라고 그래서 행복한을 쓴거 같음
* Y 가 아니라 I 다 왜 너희들만 행복을 가지냐? 나도 이제 행복을 가지게 바뀔거란 의미
* 형용사니까 동사가 붙어야하니까 .. 행복은 노력을 해야, 내가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것...
* 단어의 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happy 이든 , happi 든지 결국 중요한 것은 행복 그 자체다 . 철자에 연연하지 않아야한다.
* **발제이외의 추가적인 내용**
* 어쩌면 .. 아마도… 언어유희같지만.. 많은 의미가 담김
* possibly
* Probablly
* 아내 < 크리스토퍼
* 아내보다는 크리스토퍼와 같은 어린이가 더 끊임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 .. 애기니까 ..
* 크리스가 좋은 아빠인가 ...? 아빠가 자기만의 충족, 애기는 꼭 아빠 밑에서 자라야함을 위해 크리스토퍼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 **아들이랑 농구하던 크리스는 아들에게 꿈을 가지고 그걸 보호하라고 합니다 . 심지어 아빠 자신까지도 그걸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 우리도 살면서 이상과 현실의 대립사이에서 꿈을 지킬 수 있나요 ?**
* ㅈㅎㅅ : 조그만한 목표들을 정하고 성취하면서 나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짐, 그렇지만 현실에 수긍하기도 할 것 같음.
* ㅇㄷㅎ : 이상을 좇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좀 더 와닿아서 요즘은 변해야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 ㄱㅈㅎ :이상을 지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음. 원래는 파일럿을 하고싶었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커서 .. 와같은 이상들이 몇 번 꺾이고 나서 현실이 만만치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됨.
* **나의 서른에게, 29+1**
* **1.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고 있는(또는 못 하고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인생 최고의 아이러니는 난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았거나 해야만 한다는거에요.”*
* **2. 나와 다른 누군가와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함께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이랑 사는게 익숙하지 않아요”*
* **(**주인공의 남자친구, 가족들을 보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서로에 대한 엄청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함께 살아온 아빠와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고 또 함께해 나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 **3. 영화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불편했던 장면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번 영화 주제가 F등급 영화인만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4. 내 삶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어보아요.)
* *“사람은 무얼 위해 사는 걸까요?” / “그래, 선택했어. 사람마다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있지.”*
* **5. 나는 지금 현재 무엇에 의존하고 있나요?**
* *“나는 내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 사람인지 알게됐다. 일, 남자친구, 잠….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걸까?”*
* **6.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때 행복한 일은 무엇인가요?**
* *“우리는 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되는 거야”*

[*INSIDE-OUT* ]

- 최근의 나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기억’에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지용: 동남아, 유럽여행 /

1.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더치페이를 하려하는데, 직장인 누나가 자기가 내겠다고 하며 계산해주셨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고 했더니 내가 학생일 때 직장인 언니,오빠들이 사줬던 기억이 있다고, 너가 나중에 직장인이 되서 여행하다 학생들을 만나면 사주라고 말했을 때 따뜻함을 느꼈던 기억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의 정 , 내리사랑>

다희: 슬라임 영상 / 블로그 쓰면서 지난 여행을 돌아보는 것 / 여행 당시도 좋지만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1. 알바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안락한 전기장판, 귤, 핸드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예은: 핵심기억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는 미래를 향해 살고 있다고 느꼈다. 좌우명이 ‘후회하지 말자’여서인지 핵심기억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좋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람마다 다른 시간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와 닿았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여기서도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핵심기억은 오히려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오래 남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정습: 2019년이 되고 이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삶에 대해 고민했는데 24살이 되고 좀 더 철들어야되나에 대해 생각을 했다. 방학 동안 여유롭게 보내는게 아니라, 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해야하나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변 친구들은 시험 준비,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친구들은 이미 멀리 앞서 나간 것 같고 먼 미래에 나랑 사회적인 계급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위로해줘서 그 기억이 따뜻하게 남아있고, 결국 조급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되 조금은 바쁘게 살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 저것 해보려고 많이 신청 중!

재환: 핵심기억을 과거로만 해야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상상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다. 과거기억에서 핵심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현실 문제에 대해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정습 : 영화에서 영향을 크게 끼친 어떤 사건이 핵심기억이되고 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핵심기억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희 : 기쁨이가 핵심기억을 기쁜 기억을 핵심기억으로 하려 했고, 우리도 기쁜 기억만을 핵심 기억으로 생각해서 생각해내기 어려운 거 아닐까?

- 영화에서 인격을 형성하는 ‘성격섬’들이 나오는데요 나의 마음 속엔 어떤 성격섬들이 있을까요?

지용: 가족섬, 우정섬, 축구섬, 영화섬, 공부,진로섬, TV섬(시들었다가 스카이캐슬로 인해 부활),여행섬,패션섬,알바섬(잠시 휴식중)매너섬 그려야되고, 예의섬?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고 싶다. 2-3년 전 친구랑 대판 싸웠는데 알고 보니 내가 말실수를 해서 그랬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볼수록 내가 친구한테 미안한게 많아 친구를 피하게 되는게 있어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드립 욕심을 내다보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부작용: 말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데 중간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 ! + 가면섬 어떤 모임을 갈 때 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서. 장난을 못치겠는?

다희 : 나는 컨트롤 타워 하나랑 마을처럼 모여져 있고 바깥 세상은 장기기억을 모아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안 쓰는 기억을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예은 : 책섬, 친구섬, 영감섬(순간 순간에서도 얻는게 있으면 좋겠어서 항상 켜두는 것 같다.), 소비섬(사고 싶은게 생기면 짬이 생겼을 때 바로 어디던, 서울권 안이면 가서 보고 사는 것 같다, 소비에는 부지런 하고 소비할 때 행복감이 너무 좋다), 우울섬이랑 조증섬(을 분리해야하나 했는데 내가 우울할 때는 우울섬이 켜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조증섬이 켜지고 롤러코스터같다.) 의사소통섬(공감 능력이 좋은편인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 듣는 것을 좋아한다), 예민섬(성격이 예민한 편이라서 다른 사람이 지나칠만한 일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안 좋은건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좋은면도 크다고 생각한다 – 홍설이랑 비슷한 성격!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지만 내가 하고자하는 일이랑 잘 맞는 것 같고 예민한게 나쁜게 아니고 오히려 둔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지 않던가?)

정습 : 작년 말에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 썼던 글인데, 내가 모르는 걸 아는게 목표였는데

집 – 애교,장난스러움 (엄마한테 애교부리고, 동생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편)

일 – 책임감 (맡은 일은 제대로 하려고 함),

취미 – 운동하는걸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이유가 땀을 흘리면 숨 엄청 찼을 때 그런 쾌락, 그런 기분이 좋다.

요즘 감성이 풍부해져서 인스타그램에서 #하늘 #노을을 검색해볼 때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친한 친구들은 안 그러지만 혼자 일하거나 하는게 더 좋을 때도 있는데 고독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재환: 제주섬, 향초섬( 고민거리가 있을 때 깜깜한 곳에 초를 켜놓고, 초가 흔들리는걸 바라보면 생각이 집중되는 기분이 든다.) , 4차원 생각섬 (하는 게 코딩이다 보니 일반적인 생각으론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될까가 아니라 해볼까? 라고 4차원 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서 만들어야 그나마 유용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아날로그섬(요즘 아날로그 감성이 많이 생겼다.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댁에 갔는데 필름카메라가 있어 그걸 가져와 사진을 찍고 있다. 휴대폰도 알람을 다 꺼놓고 디지털 세상에서 좀 멀어지고 싶고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각박해진 기분이다.) 현실섬(어떤 일이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걸 중요시한다, 상상은 상상 속에 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여기고 있다.)

<로그아웃 없는 삶에 살고 있다. 네이트온에도 오프라인인 척, 수신거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 영화를 보면 라일리는 ‘기쁨’이, 엄마는 ‘슬픔’이, 아버지는 ‘버럭’이가 각각 감정 컨트롤 본부의 리더로 있는데요, 당신의 감정 컨트롤 본부에는 어떤 감정이 리더인가요?

지용: 소심이 –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엄청 잰다고 해야할까? 맥날 알바만 해도 후기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행동을 바로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알바를 해야하는데 엄청 재보고 있는 것 같다.

소심이가 리더라는게 확신이 든 건 작년부터. 공익을 할 때부터 친구를 많이 못 만났고, 맥날 알바로 조금 나아졌다 복학을 했는데 친구도 없고 복학생이라는 왕고지만 사회에 취업한 친구들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이 든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진게 내가 뭘 할지를 정해서 좀 나은데 작년 복학했을 땐 좀 심했던 것 같다. 나쁜 것 같지 않고, 예전보다 신중한 성격이 된 것 같다.

다희 : 기쁨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누구한테 나를 설명할 때 다희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 얘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들 각자마다 힘든 일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당시에만 힘들고 스위치를 꺼버려서 지나고 생각해보면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예은 : 슬픔이. 유명한 예술가들도, 작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울증을 앓았더라구요. 그런거 보면 슬프고 우울할 때 제일 영감이 나오는 느낌? 아는 오빠 글이 너무 좋아 봤더니 헤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슬플 때 얻는 것도 되게 많고 공감능력 같은 것도 기쁠 때는 상대방 감정보다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 슬플 때 타인의 감정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슬픔이일 때 가장 얻는게 많았어요.

(대화)\*나는 개인적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좋아하는데 왜 너무 나쁘게 표현했나라는 생각을 했다 / 슬픔을 슬픔으로 극복한 것 같아서 좋았다. 기쁨이랑 슬픔이가 공존해야하는 것 아닐까? 기쁨이의 머리색과 눈 색이 파란색인 것 처럼!

정습 : 나는 감정에 있어서 좀 둔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던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나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 격한 감정표현을 못하는 것 같다. 무뚝뚝? 좀 더 예민해서 잘 반응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 덤덤이? 담담이? 덤덤이!

재환 : 저도 저 안에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어릴 땐 있었지만 지금은 표현을 하자면 긍정이? 긍정이는 뭐냐면, 예전엔 소심이였다가 소심이에서 몇 년 전까지 슬픔이였는데 슬픔이에서 생각을 계속 하다보니 뭐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던 잘 될거야 라고 생각하고 긍정이가 내 리더가 된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면 딱 한명이 아닐 것 같다.

다섯가지 감정이 다는 아닐 것 같다. / 라일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머릿 속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어릴 적 여러분은 빙봉과 같은 상상의 친구가 있었나요? 상상의 친구나 추억의 물건이 있다면 가져와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Movie Crew :*** 동주

근황토크

지용 : ‘일월보관소’에서 목금 아르바이트를 한다. 밥을 맛있는 것을 준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정습 : 열심히 학교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와 전라도를 다녀왔다. (개강 전 발악) 아직까지는 알바와 공부보다는 다른 곳을 다니는 게 좋다. 산책도 즐기고 있다.

현선 : 첫 출근 때문에 즐거웠던 일들을 다 까먹었다. 선생님때문에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다. (키즈노트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여줌)

다희 : 베이징을 3박 4일동안 다녀왔다. 굉장히 좋았다. 그저께 술을 마셨는데 다시는 안 마실 것이다. 나는 마라가 안 맞는 것 같다.

예은 : 속초를 다녀왔다. 좋았다. 해리포터 4DX를 봤다. 에어팟을 샀다. 에어팟 케이스도 샀다. 맥북을 샀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함께 상승하는 요즘이다. 3일간 쉬는 날이 주어져서 서촌과 합정을 다녀왔다. 덕분에 학원 선생님에게 졸지 말라고 혼났다.

정환 : 사고가 많았다. 친구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걔가 핫팩과 쇼파를 다 뜯어놨다. 이 친구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정습이가 추천해준 멘토링을 다녀왔다. 그 이후로 진로에 대해서 재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들 스펙이 어마어마해서 현타가 왔다. 하지만 잠실에서 다운타우너라는 맛집을 알아서 행복했다.

발제

1. 윤동주시인의시와드라마는개연성을가지며인용됩니다**.** 가장인상깊었던시는무엇인가요**?**

다희 : ‘쉽게 쓰여진 시’ 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게 ~

최초의 악수라고 하면서 동주의 손을 보여주는 장면때문에 더 와닿았다. 동주가 몽규에게 열등감을 가지는 장면들과 합쳐져서 더 인상깊었다. ‘참회론’ 의 이다지도 욕될까 부분도 너무 좋았다. 국어 시간에 배우던 시를 영화에서 보니 다르게 느껴졌다. 방구석 1열도 결제해서 보았다.

현선 : ‘서시’

처음으로 외워본 시이자 유일하게 외운 시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쓴 것이 느껴지는 시이다.

정습 : ‘바람이 불어’

동주 자신이 바람과 강물처럼 흐르지만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맞이하고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 짧은 구절만이 나왔음에도 반했다. 앞에 두 줄이 바람이 부는 데에 이유가 없다는 것이 와닿았다.

지용 : ‘별 헤는 밤’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 여름밤에 쇠창살에 있는 별을 보는 장면과 잘 어우러져 좋았고, 나의 여름밤에 대한 추억도 함께 상기시킬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최근 ASMR로 여름밤을 듣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읽으면 더 좋다.

정환 : ‘쉽게 쓰여진 시’

동주의 직업의식이 느껴져서 감명받았다. 윤동주 시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시기도 하고, 별 헤는 밤을 가장 익숙하게 여기다가 영화를 본 이후로 이 시가 가장 좋아졌다.

예은: ‘서시’

장면과 적절. 국어시간에 배우던 것과 달라. 양적 증가가 끝에 닿으면 책, 양적 감소가 끝에 닿으면 시. 단어와 의미의 손실이 책보다 덜한 시. 시인의 사유가 거대할수록 언어는 농축되고 무거워져 길이는 짧아지고 깊이는 가늠할 수 없다.

**2.** 윤동주시인과그의친구이자독립운동가인송몽규는서로크고다양한영향을주고받습니다**.** 동갑내기에**,** 같은집에살고**,** 문인이라는공통점을가지지만성격과가치관**,** 그리고늘정해져있던 **1**등과 **2**등의굴레가그들의차이였죠**.** 당신은어떤사람들과어떤관계를맺으며어떤영향을만들어가고있나요**?**

다희 : 주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좋게 말하면 흡수를 잘 하는 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잘 쓸려다닌다는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좋은 영향을 말하자면 첫번째로는 부모님이다. 부모님을 닮아서 악바리 근성이 있다. (공부가 아니라 아파도 알바가기, 지각은 해도 결석은 안 하기) 두번째로는 친한 친구인 김주희다. 여러 터닝포인트를 겪었는데 함께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사고나 말투를 많이 닮게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예은이다. 최근에 느꼈는데 아는 언니를 만나서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취미가 많아진 것과 그를 즐기는 것, 그리고 감성을 닮게 된 것 같다.

예은 : 다희언니의 좋은 오지랖을 닮게 되었다 (최근에 여행가서 택시 아저씨에 대한 에피소드를 겪으며 더 느꼈다), 친한 친구인 은지와는 서로 겪은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다. 나에게 매우 소중한 친구이다. 이외에도 치킨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닭 메이트 친구나 예술관련 이야기를 하는 미대친구, 영화광 친구와는 영화이야기 등 여러 주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좋다.

재환 : 드래곤볼 친구들과 학교 생활의 80%를 함께 했다. 거의 가족같은 친구들이다. 아직도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지내고 있다. 전화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하고, 밥을 먹다가도 ‘너희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느낄 정도고, ‘너 죽으면 무덤파서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의지되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친구들이다. 그만큼 여러 영향을 받고 있다. 나에게 전부인 친구들이다. 두번째로는 무비크루를 하며 나 자신에 대해 재발견을 하게 되기도 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드래곤볼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싸움을 걸려다가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용 : 특정인은 없고, 크게 세 그룹은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 알바. 고등학교는 서로 고민이 비슷하다. 대학교에서 안 친한 친구들이 잘 되면 조금 배가 아프다. 알바에서는 사람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무비크루를 통해서도 시야가 넓어졌다.

정습 : 나보다 잘난 친구들, 중학교 때는 농구, 고등학교 때는 공부,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잘난, 재능이 특출나고 그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감 결여와 후회를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좋은 영향으로는 요즘에는 동생이 떠올랐다. 동생과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한다. 수학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데 한 명이 지금 잠수를 타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서로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선 : 초중/고/대 이렇게 나뉜다. 초4부터 친한 친구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살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느낀다. 고등학교 친구는 태국 여행도 함께 다녀왔는데 연애, 사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은 같이 일하는 언니와 어떻게 이 곳에서 버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파이팅 넘치는 언니에게 파이팅 기운을 받는다. 무비크루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예은이에게 책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한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도 했다.

**3.** 늘그림자였던윤동주가송몽규에게처음으로구체적인의견을내고**,** 처음으로제안을거절합니다**.** 당신도본래성격과다른행동을한적이있나요**?**

재환 : 많다. 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평소에는 어떤 장난이든 다 받아주거나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나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불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을 한다. (2학년 때 힘든 상황 속에서 과제를 하는데 ppt를 안 만들어 온 친구에게 욕을 하면서 화를 냈던 일)

정습 : 중고등학교 때 장난끼가 많은 성격이었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천지고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활과 너무 달라서 나도 질문을 안 하고 그랬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는 질문도 하고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 위축되어있던 1학년 때가 나와 다른 나였다.

지용 : 평소에 화를 잘 안 낸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다른 내가 나온다. 가장 최근은 맥날 알바를 할 때 승옥이모와 싸웠던 일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상황에서는 정말 화가 나서 다른 내가 나오는 것 같다.

다희 : 이탈리아의 숙소 시설이 안 좋아서 휴식도 못 하는 상황에서 주도를 해서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보상금을 받았다. 그 이후로 불의를 못 참고 책임감을 갖는 성격이 생기게 되었다. 주희가 ‘너 이런 모습 처음 봐.’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에게도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은 : 저도 언니랑 비슷하게 상황/대문에 원래 성격이 뭐엿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겟지만 원래는 말도 잘 못하고 소심한 편이엇는데 ㄱ래서 항상 ㄲㅏ이는 존재엿다 교과서 나무에 걸려잇고 양잿물 뒤집었?ㅡ고 난리도 아니엿심 근데 고2 2학기ㄸ?ㅐ 전남친이랑 친구로 친해졋다 나랑 친해질라고 말 엄청 걸엇다 참는 성격이 안좋다는걸 느’꼇다 그 이후로 화를 내닊?ㅏ 무시를 안햇다 그래서 그ㄸ?ㅐ부터 깨닫고 내 의견을 내닊?ㅏ 그 이후로 내 성격이 달라진것같다 내 목소리를 내는게 더 편한느낌쓰 은정이가,,,ㅠ̑̈ 오 이거 뭐야 슈 아이폰이랑 ㄸ?ㅗ깥이 설정가능하군 내가 타자 못치는건 손가락 다쳐서야 그리고 너 노트북 ㄸ/ㅐ문이야~~

현선 : 예전에는 표현을 못 하는 성격이었는데 요즘에는 중심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학기 준비를 3일동안 했는데 예전에는 ‘울 일이 있나?’하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울었다… 그래서 나도 생각보다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인상깊었던장면과대사

예은 : 동주와 몽규의 교차 장면이 인상깊었다.

정습 : 몽규가 동주에게 가자고 하는 장면. 그들의 여린 모습을 발견해서. 시모노세키

지용 : 감옥에서 창 밖의 밤 하늘을 바라보던 것과 과거의 좋아하는 여자애와 걸으며 보았던 밤 하늘이 교차되던 장면.

다희 : 감옥에서 아는 척 하지 말라던 장면. 처음에 시인에 대한 문제로 싸우던 장면.

**셰이프 오브 워터**

**19.05.04**

**0. 근황**

다희^^ : 루머의루머의 루머를 보는 데 원래 이런거 잘보느데 이건 좀 피폐해지고 악몽도꾸고.. 긜고 어벤져스 보고 자격증 시험을 봤다. 잘본지 모르겠다. 잘봤으먼 좋겠다 !! ㅎㅎ 마지막…. ,,, 퇴사를 했다 우와~~ 그리고 다음달에 영어회화 강남역에 다녀요! 매일매일 아홉시부터 두시까지 다녀요 빡세네.. ㅜ 스터디하거나 숙제 하거나 한다네여 다음주에 전주가여 다음주에 영화제 유명한거 하는데 그걸 보러갑니다.! 잘다녀오세요 다운이랑 연극도 보러 가기로했어

정습: 저는 일단은 목요일날 우울햇어 왜? 아니 헤어진건 아니라 시험을 2주동안 봣는데 나름 열심히 햇는데도 내 기대치에 못미치게 시험을 못봣다,,, 근데 여친이 위로를 잘 못해줘서 조금 섭섭햇다 다음에 잘할거야~ 햇는데 다음에 잘해야된다는 부담감때문에 조금,,,,섭섭쓰 냉전이엇지만 풀렷음 교수님이랑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합격되서 이제 할 것 같다 삐팡이 저번에 모엿을때 경진대회 선정되면 60만원 지원받음 개이득 맥날 그만둘지 조금 고민중….퇴직금 어차피 못받을거같고 내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어여

요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하아 한시간 자고 시험보러감,,,내인생 여친이랑 경주가서 흑백사진도 찌거따롱

현선: 4월에는 적응기간이 지나서 일이 너무 많앗다 부모님 면담이랑 관찰일지 하느라 주말에도 매일 일하고… 면담할 때 부모님 보면서 느낀게 자기 시간들이 없어서 많은 걸 느낌

번갈아가면서 애기를 케어하는 모습이 살짝 아쉬웠다 애기가 요즘 힘들어하는데 그게 가정과 연결되어잇다는 느낌을 받앗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됫다 사실 답은 없지만 서로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 보엿다 어린이날 행사가 어제 끝낫다 너무 힘들엇다… 개미 역할을 맡앗는데 조금 귀찮아서 가면을 대충 만들엇는데 애기가 무서웟는지 울엇다 애기한테 선생님이라고 말하니까 개미 발음이 안돼서 애미라고 햇다,,,,ㅎㅎ 4월 자체가 끝나서 잘 버텻구나 싶어서 행보캅니다람쥐~~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하면 다른 일을 할 지 고민하고 잇는데 에디터 스쿨을 하고 잇어서 그걸 신청함 25만원,,뽕 빼야징 편집장님한테 배워서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함 중학교 때부터 아복을 하고 싶엇지만 요새 새로 생각을 해보니까...많은 생각을 햇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사회화되는것이 맞는 걸까….

지용: 튀김족발 시켯는데 영등포 맛집을 예은이한테 추천받아서 그런지 너무 맛잇더라고요 족발인데 치킨같은 느낌 돼지가 치킨인척함 ㅋㅋㅋ개어이없어 일월보관소를 관둿습니다 저번달 5번 나간거로 현타입음 10만원 말이야 방구야… 서비스 안줄듯 이제 예비군 가용 당일치기로 총쏘기 교생실습 오티를 중흥고로 갓어요 교생이 9명이엇는데 8명이 여자라서 청일점이엇고 대표교생이 됏어영 ㅎㅎ 나만 이과엿고 다른 사람들은 미술체육역사컴퓨터 문과엿어요 소외감이 들엇다 ㅜㅜ 다음주 화요일부터 학교를 가서 오랜만에 에어리즘 와이셔츠 넥타이 삿슴다 잘어울지몰겟네 후기알려줘요 브이로그 찍어봐요 교생의 하루 체육대회 재밋겟다 ㅜ어벤져스 두번봣슴

재환: 시험을 봣는데 11시 시험이엇음 눈뜨닊 10;50 개큰일 진짜 5초동안 생각햇는데 택시타고 도착햇는데 20분 지난 후엿음 관종이엇음… 나온사람업져???????!!!!!! 교수님이 구출해줘서 봣는데 그냥 잘본..것도 아니고 못본것도 아님 적당히 ..잘봣다..그럼 잘본거야~ 외로워보여서 5개나 소개팅이 들어왓다 대박 왜지 연애할 때가 아니라서 그냥 안할라는 생각중… 다 거절하고 보니까 더 외로워졋다 어뜩하냐 알바 학교 프로젝트시작하고 공부하나 더시작햇는데 주식공부를 하면서 돈을 불릴 생각을 하고 잇어요 가치투자,,,, 팟캐스트 들으면서 느꼇는데 결국 돈을 벌면 투자를 해야된다고 함 아이폰꿀팁 알려줄게 1.1.1.1 vpn개념인데 우회로를 찾는거임 (지용-요즘 케이티가 느리다고 햇자나 근데 리얼 빠르네 정습- 평균적으로 28퍼센트 빠르다고 합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 맥북꿀팁은 나중에~~

예은: 시험을 봣어야됫는데 신청해놓고 보러 안갓습니다람쥐 7월달에 보기로 햇어요 술에 늦바람이 들엇는지 작년에는 대여섯번 먹엇는데 저번달에 대여섯번 먹음 그리고 최근에 체육대회햇는데 아저씨들 너무 재밋음 ㅋㅋㅋ 그리고 책보부상을 갓다왓어용 독립출판 축제에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김 ㅎㅎ (어디서 생긴거죠????) 사내 연애랑 cc 동시에 하는 수준 ~~ 베이스 부장이엇던 오빠에요 얘기가 짧긴해용 학교에서 그냥 서로 복학시기가 달라서 그냥 인사도 안하는사이엿는데 인턴 면접때도 인사 피할정도롱 근데 최근에 문화의 날에 영화를 회사사람들이랑 보고 회식을 갓어염 친한 오빠가 시간을 정해주고 이때가자고 햇는데 말도 안듣고 너무 신나버려서 2병 반을 까버렷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잘 먹는거 다 알아버림 근데 그 와중에 주변 사람들이 계속 자리가 바뀌엇다 그 중 온 사람이 그 러버엿다 그 후로 선임분들이 엮기 시작햇다 그 다음날에 오빠가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밥을 같이 먹엇어영 4월17일날 …..연락을 본격적으로 한 건 저번주 목요일 부터엿습니다 어느 날 같이 단둘이 이야기 햇을 때가 잇엇궁 5월에 야구를 같이 보기로 햇고용 그리고 체육대회 끝나고 회식자리에서도 옆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오산이가 죽엇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쯤에……….근데 어벤져스 두번보라고 거의 뭐 같이 보재서 봣슴다… 이번주 수욜에 그래서 영화를 보고 술을 먹다가…..ㅋ...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x10 손을 잡고 뽈뽀를ㄹ 하면서 나랑 사귀...는 다희의 상상 야구를 보러가기 전에 너와 무슨 사이가 되고 싶당! 다희소감 : “아니 근데 .. 남자친구위에 언니랑 친구들이 있다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질투나지 않아 전혀! 진짜 리얼 그런.. 질투안나.. 걱정돼 그냥 나는 나는 나는.. 뭇느맘은 가볍게 만나는 건 알지만 .. 라이트하게 만나는건 알겠지만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보부상갔을 떄 어캐 해야하는지 얘기를 다 했는데.. 다희맘이 보기에 너무 급하게 ㅁ연락도 한지 얼마 안됬을 떄 만남이 시작되서 ,,

1.내면과 외면

예은: 내면/ 내면이 본선이고 외면이 예선 외면- 피부하얗고 어깨가 제일 중요함 이 오빠는 어깨만 충족햇습니다 180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내면- 음식점갓을때 종업원에게 대하는 태도나 (정습-예히,,,,,,ㅋ) 공감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저한테 질문이 많은 사람이 좋아용 오빠랑 얘기하면 오디오가 안비고 장난치는걸 좋아함 건대데이트 하면서도 계속 장난 걸엇어용 이사람 통한다? 이느낌 그 오빠는 저한테 그런걸 느꼇대영

재환: 내면/ 일부러 안썻다 뭔가 잇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어성 역삼각형 모양같다 내면이 나의 스타일. 내면을 내 스타일대로 받아들이겟다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내면입니다 왜냐면 겉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니께 내면으로는 긍정적 예의 성실함 첫인상임 또.. 거짓말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아예 트루로 다 말하는 게 좋은것같다 모든건 결국 돌아와 외면적인건 이런모습은 싫다는 자기 관리 안하는사람 내가 예전에 살이 쪄봐서 느꼇지만 너무 게을럿고 귀차니즘이 심햇다 그래서 느낌쓰

지용: 외면/ 처음에는 내면이라고 생각햇지만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니 20살이후로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없엇던듯하다 외면이 먼저 내 스타일이어야 본선 진출입니다 외면은 조금 수수한 사람 임수정처럼! 여리여리한 느낌 전에 좋아햇던 세 분도 느낌이 그랫습니다 내적인건 나와 다른 사람은 호감이 가지 않아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좋다 유머코드도 유머코드인데 영화같은거로 치면 느와르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느와르를 좋아한다고 하면 조금 거리감이 생김 그리고 욕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음대화가 조금 되지 않아서 똑똑한데, 멍청한 사람. 자기 할일을 하는데 은근 손이 많이가 학력이 높은데 막 넘어져 이런느낌쓰 놀리는 맛 여친이 나를 놀려도 좋아ㅎ 성격적으로는 반대지만 취향은 반대엿으면 좋겟다

현선: 외면/ 뭔가 지금까지 호감을 가졋던 경우를 보면 친구들이 나보고 느낌파라고 해 관심이 간다 궁금한 느낌?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관심이 조금가서 계속 좋아하기 시작함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좀 까만 사람 스포티 덩치 크고 ~~~요즘은 너무 큰 사람은 별로고 연옌으로 치면 윤두준? 101햇던 수염잇던… 아이가 좋앗엉 어떤 외모보다는 느낌 내면으로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한테 호감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 겸손하고 다정한 사람이 좋아용 요즘은 취향 비슷하궁~~

정습: 내면/ 내면적으로는 평소에 여친이랑 티키타카가 잘된당 장거리인데도 부담없고 재밋고! 통화하다가 할 애기 없을 때 좀 그랫는데 지금 여친은 그런 정적도 ㄱㅊ 내가 언제 1시간 통화햇징 통화연락이 좋아용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연애를 하는 게 좋다 나의 일부를 나눠주는 연애! 명대사 오지시네용 성격이 뭐라고 규정하기 어렵고 나의 느낌쓰 욕은 안햇으면 좋겟어요 평소에는 적당히 햇으면 좋겟당 시간적인, 내적인 여유가 잇는 사람이 좋다 여유가 없으면 내가 너무 맞춰줘야돼서 힘들다 내가 편한 시간에 연락하는데 연락이 바로 오면 좋음 외적인 부분은 아담한 사람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햇으면 좋겟당 근데 성격이 좋으면 달라지긴 하는뎁

다희 : 눼면 / 지금까지 사귀었던 애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좀 조용한 성격이 없고 다 활발하고 장난기가 있거나 적극적이거나 기본적으로 착한 성품, 악감정 별로 없고 예의바르고 잘 챙겨주고 사소한거 잘 챙줘야하는데 만나게되면 이제 오직 나한테만! 다른사람한테 안돼! X

근데, 잘 챙겨주는사람.. 오빠라고 다 챙겨주는건 아니니까 동의합니다 ! 둘쨰나 셋째든 암튼 첫째 장남같은 스타일. ㅎ 누나를 가진 남자친구를 만나봤는데 별로 띢X 외면은… ! 안경쓰면은 매력을 못느꼈는데 이동휘를 보면서 안경+수염이 괜찮구나.. 감가쿠적인 사람이 좋다. suit입는사람 천쪼가리 슈트같은거 조금 갖춰진 복장을 입은거 요즘 눈을 떳어 A .A

2. 선입견

재환: 어릴 때 깨진 건데 왜 힘들면 술하고 담배를 하는 지 알 것 같음 왜하는지 알것같음 잠시나마 인종은 왜 신경이 안쓰이냐면 동생이 흑인이랑 사귄다 지금 우리 집에 같이 잇는데도 귀엽고 치킨 먹을 때도 정생김 사람 대 사람으로 편견을 많이 생각해보지 않앗다 경험을 해보니까 편견이 사라지는 것 같다 담배를 왜 피냐면 한 순간에 스트레스를 풀…..의지…. 가 아니라 솔직히 머리 회전이 빨라진다 프로젝트 할 때도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름

지용: 딱히 선입견이라기보다 이런 거에 관해서 남기자의 체험리즘???? 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저널리즘 씀 눈감고 벚꽃축제 가봣다 등등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읽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선입견이 많앗구나 싶엇습니다 외모적으로 첫인상을 딱 봣을 때 자기 관리가 안되어보이는 사람을 봣을 때 내가 생각햇던거와 달리 쾌활하고 일 잘하고 … 이런 거 보면 첫인상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싶엇어여 보통 외적인 거에서 선입견이 많이 생김

현선: 유럽여행 갓을 때 우리 사회가 편견으로 둘러쌓여잇다는 생각을 많이 햇음 동양인이 나 뿐이엇을 때 처음으로 소수자가 된 느낌이엇다 우리가 살고 잇는 사회가 모두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같앗다 나도 되게 다수에 속해서 살아왓구나,,,싶엇음 (정습-인간공학적 설계) 바깥놀이….민주사회...어려워용….

정습: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서 그렇게 선입견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러시아 국적의 머리 미신 분이 앉아잇어서 거의 설국열차 같앗음 러시아 군인이라서 무서운 마음도 잇엇지만 안쓰럽고 동지같앗다 첫인상 옷입은거나 헤어나 신발 그 다음에 대화 행동 제스처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 첫인상이 내 생각에 자리잡혀잇다가 그게 깨지는 순간이 오면 내 잘못을 인정함

다희: 중국여행가서 느꼈어여 중국사람들은 다 못살고 더러울거 같고 예의없을 거 같고 좀 잘생긴 사람 없을거 같고 했는데.. 가가지고 많이 달라졌고 스타일 좋은 사람도 많고 거리도 깨끗하고 예의바른 사람들도 많고 ,, 내가 너무 단편적 모습을 보고 판단했나 싶음. 중국도 확실히 자기들의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한국스타일 같았음.

예은: 정신병에 대한 ,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어잇을 줄 알앗는데 전혀 아니엇다 연애를 시작한 것도 내가 심적으로 건강해서 할 수 잇엇던것같다 작년에는 우울할 때도 잇엇지만 올해에는 깨졋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편견이 생긴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니다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보편적이듯 마음의 병 또한 누구나 올 수 잇음

3. 낯선 타자나 낯선 환경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

예은: 나는 원래 엄청 낯가리고 소심하고 음식점 주문도 잘 못햇는데 어쩌다보니 성격이 많이 바꾸엇어용 경계가 예전에는 조금 잇엇지만 요즘은 경계가 거의 없고 … 최근에 생각이 많앗어요 상처를 받을 확률이 많아졋다 낯선 걸 오히려 요즘은 엄청 좋아해염 새로운 경험 왜그렇게 바뀌엇는지는 모르겟음

재환: 어디 일을 간다거나 햇을 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낯을 엄청 가렷다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잇기 때문 점점 그 집단의 소속이 되면서 점점 친해짐 진짜 웃긴게 나도 그 집단에 속하기 전에는 낯을 가렷는데 소속된 후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더 챙겨주고 반겨주게 된다용 혼밥하는게 진짜 어려웟는데 계속 해보니까..레베루가 축적됨! 제주도 갓을 때 고사리 육개장 먹은 후로 바뀌엇당!

지용: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 굉장히 낯거리고 소심해짐 그 기간이 두 달이 지나야 …. 없어짐 편해지고 요즘 느끼는 건데 내가 소심해지고 잇음… 예전엔 알바 새로 하면 말을 잘 걸엇는데 요즘은 너무 까불하지 말아야징 싶음

현선: 요새 읽는 책에서 확신에 갇혀서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됨 확신이 바뀔 수도 잇는데 어떤 거를 무조건 확신하는 거는 안된다고 봄 낯선 환경이나 낯선 타자도 함부로 내가 확신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손가락, 고양이 대화

먹방asmr..

다희 : 원래 호감이 아니면 말을 잘 안하고, 호감형(호감의 기준은 말이 잘 통할것 같네~ 친해지고 싶다, 오~ 저 친구 좀 괜찮네~ )이면 말을건다. 다희만의 느낌으로 호감인지 아닌지를 나눈다. 알바같은 경우는 적응하라고 대화를 걸어주는 것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면 안한다. 호감형인 사람들한테는 되게 외면적으로 이야기를 잘 걸고 속으로 관찰을 해여,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깐.

낮선 환경의 경우는 학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친구랑 같이 다닐때는 서로 말도 걸고 대화를 잘 하는데, 혼자서 낮선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조용한 척을 하고 있다. 근데 낮을 가리지는 않응다. 조용한척을 하는 이유는 혼자서 나대는 척을 한다면 ㅁㅊ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셰이프 오브 워터>의 부제목은 <사랑의 모양>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은 무엇인가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지용 :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양입니다.(예예~) 사랑의 정의는 잘 모르겠다. 인스타 친구의 경우 자주 남자친구가 바뀌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사랑해서 남자친구를 사귀는 건지 모르겠다. 사랑이 쉽게 깨지는 것처럼 가벼운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는 잘 모르겠다.

이건 저희 누나 얘긴데여 9년 사귄 남자친구랑도 헤어졌는데, 호주 워킬홀리데이 가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뭘까.. 사랑인가..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맥주 짠

다희 : 저는 이거를 영화 보자마자 감독이 얘기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감독의 의도를 알았는데, 그게 너무 공감되어서 그걸로 생각하기로 했어여~

뭐냐면 얘기 주제목이 셰이브오브워터 이고, 부제목이 사랑의 모양이잖아 물의 모양이 사랑의 모양이라는 거지, 형태가 없어서 그 물의 형태가 사랑의 모양이다.

현선 : 남미여행 할때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헤어진지 쫌 되었지만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했는데, 뭔가 서로의 불완전함 까지도 서로 채워주고 해줄 수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환 : 인종과 국적이 상관없이 서로 이어지는 믿음의 선이다.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깐 거짓말은 하지말자.

정습 : 난 사랑의 모양을 생각했을때 야한생각 밖에 안났어요.

뭔가 요즘에 바쁘니깐 지금은 잘 만나고 잘 사귀는데 요즘들어서 예은이가 한말, 연애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가 공감된다. 뭔가 자기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깐 이해가 간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친과 잘 안되면 이후에는 연애를 좀 접을까 생각중이다.

예은 : 옛날에는 쫌 연인 사이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를 안하는 동안 친구들이랑 더 오랬동안 지내다 보니, 어딜 놀러가도 다희가 좋아하는거다, 은지가 좋아하는거다 이러는 행동들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범위도 넓어지고, 계속 모양도 변하는거 보니깐 셰이프 오브 워터인것 같다.

사랑의 정의는 안하던 행동을 하고 하던 행동을 안하게 되고 나를 변하게 시키는 것이 사랑의 정의 아닐까 생가각합니다.

메멘토 (Memento)

2019.05.25.토요일

###

근황

지용 : 교생 실습을 나가고 있어요 3주지났음 마지막주가 남았죠 수업 6개를 해야되고 지금 까진 4개했어용 수업 처음엔 개떨렸는데 지금은 안떨리고 수업 1교시에는 정신이 없고 2교시는 그래도 똑같은거 하니까 괜찮았음 지난주 금요일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팀은 7등을 했어용 군복이랑 소방관 점프수트 이소룡.... 우리 때랑 비슷하니까~ 일월보관소는 알바 같이 하던 누나들이랑 송별회 겸 갔어용 모츠나베가 맛있다 다음주는 교생 마지막 파티~ 교생 끝나면 시험 2주전 앞으로 해야할 과제가 10개... 내 학점은 저 멀리... 계절학기를 들으려했는데 까먹고 신청을 못 함.

다희 : 마라탕을 먹었다.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200 와우. 희원이는 400. 와우. 근데 200중에 120이 학원비 유유. 국가장려금 신청. 12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엄마 줄 듯. 효녀네. 학원 시작. 재밌음. 영어회화학원. 다닐 맛 남. 무리가 생겨서 재밌음ㅋㅋ. 나이대도 다양해. 백발할아버지도 있다. 취직생각 노노 용기를 받았다. 평일 월~금 아침9시에가서 2시까지 수업듣고 스터디까지하면 5시까지도 함. 이디야 알바도 하는 중. 7개월치 결제. 265만원. 알바는 토일 4~10시까지 성곡 사거리 지점. 전주 영화제를 다녀옴. 다행이에요? 침묵의 장벽을 봄. 다행이에요는 목포에서 어떤 좀 진짜 좀 나도 좀 몰랐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포에 괜찮은 마을을 차린건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힐링 프로젝트. 도시를 알리고 뭐 그럼. 근데 보다가 울었음. 많이 상영했음 좋겠음. 예은이랑 전시회도 가고 플리마켓 가고, 희현언니 만나고. 아 전주 여행도해서 한복도 입고 놀았어요. 끝 아니고. 자격증 필기 붙어서 실기 보러가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봅니다. 진짜 끝.

34분 늦은 재환이 : 다희는 행복해 보였는데 나는 너무 불행했다. 맥날에서 감기에 걸림. 감기가 안끝나요. 감기를 동아리 사람들에게 다 옮겨서 미안하다. 학교 프로젝트가 너무 쌓였다. 자퇴 생각까지두...ㅠㅠ 이제 전공은 안살릴래요. 아깝지만 너무 힘듦. 지금도 힘든데 회사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 공기업 준비중이긴 함.

다희 : 벌써 공부 중이야? 추진력 쩐다

지용 : 나는 죽을 사다

재환 : 몸무게를 재봤는데 7kg이나 쪘다. 와우. 내장지방 덩어리. 배랑 허벅지를 꼬집으면 안 아픈 사람이 있다. 안 아파야 좋은 것.

다들 뱃살과 허벅지를 꼬집는다

일동 : 아픈데?

지용 : 난 안 아픔

재환 : 스토리에 욕을 엄청 올림. 학교 생활과 맥도날드가 끝! 아 팀플 준비하는데 저장 안 한게 날라감. 맥북 못 팔겠음. 윈도우 너무 잘날라감. 극혐.

예은 : 그치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윈도우가 필요하긴 함. 극혐.

현선 : 평가인증이 6월에 있음. 근데 언젠지 안 알려줌. 그래서 엄청 준비중. 맨날 집에 늦게 옴 이거 때문에. 근데 6월 4주에 온대. 망했음. 고통의 한 달이 될 듯. 오늘도 사실 청소하러 갔어야했는데 이번 주는 쉬기로 함. 너무 어려운 주제가 있는 주인데 하필 그 주에 걸려서 망함. 그리고 애들한테 잔소리 중. 정리하기 규칙따르기 말 잘 듣기 등등. 잔소리꾼이 된거 같다. “으응 정리하고 가야지~”. “이리 오세요.”, “응~ 아니야~” (다희 : 응 아니야~의 어원이 유치원이었다.) “세균 벌레가 너무 많아~”, “세균 냄새가 나요~”, “비누 냄새~” 끝? 응 아니야~ 사진을 보여 준다. 수박, 탕수육, 렛잇고. 귀여움. 끝!

예은 : 역마살이 꼈다. 3일 빼고 다 약속을 잡음. 와우. 체력도 넘침. 근데 최근에 가위에 너무 눌리는 중. **전 남친** 에게 저주 당하는거 아니냐는 말을 듣는 중인데, (※참고로 여기서 전 남친은 지난 영화 모임에서 말했던 뉴 남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바쁘고, (참고로 18일 사귀었음) 시간이랑 돈이랑 감정을 써야 하는데 결국 셋다 없었다. 그 정도의 남자가 아니였음. 역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겠다. 나는 사귀면서 정이 드는 타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근데 회사에서 계속 마주침ㅎㅎㅎ;; 전화로 헤어짐. 여기서 헤어진 건 전전 남자친구. 현선이 다미 전남친 야구 누구 만나고 데이트 한 번 뚝섬 또 만나고 아는 언니 친구 다희 학교 축제. 아 학교 축제에 이번에 2번째로 감. 늦바람 부는 중, 술을 위해 태어난 몸. 십센치도 보고 술 마시고, 팔로우를 걸었다. 맞팔 됌.

지용 : 이렇게 뉴 남친이...

다희 : 그런거 같아요.

뭐 술 종류 다먹음. 근데 나는 멀쩡. 3시까지 먹고 5시 40분에 일어나서 출근함. 미쳤다. 분명 술냄새가 났을 텐데. 전철에서 옆사람들이 쳐다 봄. 가위에 눌리는데, 내일은 ‘서재패’를 가고 다음 주는 금토일월화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눌린다. 오히려 집에가서 쉬면 가위 눌린다. (신기한 사람) 내가 귀신에 씌인건가. 패스티벌을 앞두고 죽은 여자 귀신. 비오는날 눌렸는데 빗소리는 들리고 심장은 쾈ㅇ쾅ㅋᄋᆞᆿ와카ㅗ 눈뜨면 귀신이 보일꺼같고 무섭무섭무섭다.

정습 : 나는 가위눌리면 욕함. 버스타고 가는데 누가 내 입술을 만짐. 띠용. 몸이랑 입이 안움직이는데 누가 자꾸 나를 만져서 퐉!

예은 : 귀신 넘나 무서움.

다희 : 이건 꿈이다. 나는 자는 중이다. 또 꾸고 싶어서 다시 자기도 함

에필로그)

예은 : 전남친의 친구가 축제 때 옆 테이블에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치고 정적... 근데 취하고 친구랑 사진 찍었는데 그 전남친의 친구도 사진에 찍힘... 신남.

정습 : 분명히 뭘 열심히 했는데 뭘 열심히 했는 지 모르겠음. 메멘토. 내일은 토익 시험. 근데 망할 거 같음. 정직하게 650만. 예비군. 저번주 목요일. 신기방기. 군대랑 너무 달랐다. 4시 반에 끝남. 교내 프로그램 다 됐다. 바빠질 예정. 교수님이랑 하느 것도 있는데 넘 무서움. 하나 둘씩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 같음. 하루를 살아가는 중. 삐팡이 진행해야하는데, 뭐 어떤 펌웨어로 만드는 건데 재료비 예산은 40~50사이 회의비 20만도 들어옴.

일동 ; 한턱 쏴

다희 : 반박자 쉬고 한턱 쏴~

일동 : 띠용?

정습 : 축제를 즐겼습니다. 여자친구와는 ... 잘 지내고 있는데... 바쁘니까 생각이 잘 안나더라. 장거리라 그런 듯? 모르겠어요. 그치만 연락은 꾸준히 하는 중. 보고싶다는 생각은 잘 안듦.............

다희 : 이런 커플이 오래 갈 ‘수도’ 있음

정습 : 여자친구는 엄청 표현 많이 하는데 나는 바빠서 그런지 별로 엄청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음

###

레니는 사고로 인해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변사람이 아니면 본인이 사건 사고로 레니와 같은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다면 본인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면 어떤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할껀가요?

다희 : 어떤 사건이 있고 사건 이후의 일을 기억을 못하면 선행선, 사건 이전을 기억 못하면 역행성. (참고)

재환 : 성격으로 접근하면, 내가 걸리면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내 갈길 내가 알아서 갈테니,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다. 남에게 피해주는 게 싫다.

다희 : 근데 떠나고 자신이 떠난 걸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와서 찾아달라하면 어케?

예은 : 그럼 이제 몸에 타투를 새겨가지구...ㅎ

재환 : 남이 걸리면 조금 다른게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고 아내가 걸리면 사랑해서 절대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친구라면 간간히 안부정도는 물어볼 듯.

다희 : 선행성이면 아내가 그 전에 있던 너와의 추억을 기억할꺼 아니야...

재환 : 메멘토처럼 허구적인 상상이 가미되지 않도록 도와주긴 할 듯.

지용 : 건축과시절 어떤 선배가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다 예전에 디엠으로 나한테 저를 아시나요? 하면서 사실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기억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기억을 찾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음 근데 너무 무섭고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그냥 연락 안하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진짜로 걸린 건지 만 건지 모르겠다 친한 친구였으면 연락이 갑자기 안되면 불안하니까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었을 것 같다 만약에 진짜 나갔어야 됐으면 한 명 더 데리고 나갔을 것 같다.

다희 현선 예은 정습.

지용 : 다희 염색했네요,

다희 : 염색한 지 오렌지...

지용 : 혹시 지난 무비크루 때도...?

다희 : 선행성은 괜찮은데 역행성이면 좀 힘들 듯. 추억은 있으니까. 추억은 계속 만들면 되니까.

정습 : 나는 역행성이 나을 거 같은데

다희 : 어 생각해보니 선행성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게. 둘 다 힘드네.

현선 : 근데 와닿지는 않음

다희 : 의사들이 이 영화를 극찬했는데 선행성 기억상실을 잘 나타낸 영화라고 합디다. 기억과 기록은...

지용 : 그건 발제 4번으로...

다희 : 내가 걸리면 열심히 메모하고 다닐 듯.

정습 : 내가 걸리면 돈 갖고 나와서 떠돌아 다닐 듯

재환 : 바보같이 사람들의 말이나 글을 다 믿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힘들 듯.

예은 : 믿는 사람도 별로...

현선 : 근데 이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쳐서 병을 만든 건 아닐까?

(중략...)

다희 : 어 근데 이 노래 좋음.

재환 : 괴한이 닥쳤을 때 머리를 다치면서 병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인슐린 사건.

예은 : 새미가 사실은 자기인 거지.

현선 : 새미가 사기꾼 아님?

예은 : 정신승리 할라고 쓴 거 아님?

다희 : 결말이 정해져 있는 거래요. 열린 결말 아니래요.

현선 : **“놀란이 논란있게 만들었다.”**

예은 : 새미도 사실 정신 조작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

현선 : 반나절 정도의 기억상실이면 살만하지 않을까

예은 : 근데 돈을 벌 수가 없어...

정습 : 뷰티 인사이드 같은 느낌? 외형은 같은데 내면이 맨날 바뀌는?

현선 : 근데 사람과 관계 맺기가 힘들어서 살기 힘들 것 같음. 근데 그런 일 없을 꺼니까 생각 안 할래~

재환 :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음

지용 : 근데 자살하다 자살을 까먹음.

일동 : 띠용~

###

레니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이지만 그의 아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잊혀진다는 가정하에, 꼭 기억하고 싶은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을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예은 : 나는 너무 오래 살았어.

정습 : 작년으로 범위를 정해서 3개를 정해보자!

재환 : 범위는 자기 스스로 정해서 해보자!

**다희 : “나는 어제를 기억하고 싶어” (자아도취) 내가 생각해도 넘 멋있음 ^^**

다희 : 이름도 빨간색은 좀,..

지용 : 저는 미신을 믿지 않아요

예은 : 저는 소중한 사람이랑 별로인 사람을 다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야 안 당하니까

정습 : 나는 소중한 사람만!

현선 : 나는 일단 작년에 헤어진 건 지우고 싶고, 남미 여행 너무 좋고, 4학년 1학기 좋고, 면접은 별로였고.

지용 : 나는 이제 교생하는 교육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고, 학창시절 때 기억이 학년별로 기억났으면 좋겠다. 중 1때 기억나는 거는 어떤 일진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친이랑 나랑 짝축구를 했는데 그 일진이 질투 오져서 나한테 욕 엄청 함. 중 2때는 맨날 축구함. 중 3때 첫 여친이 여리여리 수수한 여친 나름 학교 퀸카... 근데 나랑 왜 사귀었는 지 의문임 한 달 만남 고딩때는 야자시간 때 떠들다가 혼난 것. 요즘 애들이 교복을 안 입어요. 운동화를 신어용 어벤져스 크록스 조하. 그런 학창시절의 기억들.

재환 : 나는 3가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다희 : 김동률?

재환 :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여친‘들’. 그래도 특별한 순간들이니까. 외국인과 사귀었던 것도 특별한 일이니까 세 번째는 프로젝트들. 그래도 나름 즐겼었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습 : 피곤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로 한정하자면,

현선 : 여자친구?

정습 : (침 묵)

다희 : 많이 안좋아하는 구나?

예은 :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라이트하게 연애하자.

정습 : 저는 잠수를 탄 친구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5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연락이 안돼요. 4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아직도 1이 사라지지 않음. 이제 잘 이야기도 안 함. 소중했던 친구인데 이제 슬슬 잊혀져 간다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친구가 돌아왔을 때 토닥여주며 받아주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마음이 아픔. 바라보고 있기가 어렵다. 이번에 놀러갔을 때 그래서 사진 많이 찍었음.   
지용 : (마음의 소리... BGM이 적절하군요. 어바웃 타임 하우 롱 윌 알러뷰)

정습 : 영화보다가 울었음.

다희 : 왜에 ㅠㅠ

정습 : 목소리의 형태를 봤는데, 1시간 동안 펑펑 움. 내가 너무 한동안 힘들었었나 보다. 이런 것도 근데 필요한 느낌. 뭔가 비워내는 느낌. 동생이 꼴깞떨지 말라고 함.

지용 :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화 주제는 슬픈 영화 어때요?

일동 : 좋아요~!

다희 : 저는 학원에서도 차 올라요...b

예은 : 이 언니는 진짜 이상해.. -ㅁ- 저번에 뭔 얘기하다가 눈물이 차올람.

다희 : 아니 어제 나이키 광고를 보다가...

일동 : 띠용

현선 : 애들 재롱잔치 보다가 눈물 또로록...

예은 : 나는 엄마랑 싸울 때, 서러워서..? 분노? 근데 나는 슬퍼서 울고 싶어요. 전전남친이랑 사귀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다희 : 안친한 사람 결혼식가서도 울었음

예은 : 경복궁보다가도 울라고 함... 이상해 이 언니

갑자기 정습 : 한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전역하고 블라디보스톡 독수리 전망대에서 아경을 보는데 항구 도시라 그런지 불빛들이 초롱초롱 별들이 떠있는 것처럼~ 이뻤다. 남기고 싶은 기억

현선 : 운건 아니지?

정습 : 아 운건 아니구..zzz

다희 : 나는 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울었는데...

아 최근에 TV프로그램 이수근 서장훈 나오는건데 뭐 슬퍼서 또 울었음...

프로듀스 보면서도 울음...

다시 발제로 돌아와서.

예은 : 3가지...

재환 : 1가지로 할라고 했는데 원래...

예은 : 큰거 보단 사소한 것들이 더 기억에. 전전남친을 4년 사귀고나서 힘들어서 기억을 지우고 싶었는데 지금은 덕분에 연애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물론 걔는 아직도 싫은데, 그래도 덕분에 배운게 많아서 그 연애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고, 친구들과 한 즐겁고 깊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싶어요.

다희 : 노래 선곡이 좋군.

###

기억은 뇌에 받아들인 인상, 경험 등 정보를 간직한 것, 간직하다가 도로 떠올려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 즉, 기억 중 가장 소중한 기억과 잊고 싶은 기억은 무엇인가요?

현선, 예은 : 저는 2번이랑 섞여서 말한 거 같아요.

재환 : 드래곤볼 친구들. 올해 한 번 만났는데. 2번이랑 3번이랑 발제를 나눈 이유는, 2번은 말 그대로 기억하고 싶은거고 3번은 소중한 거... 잊고 싶은 기억은 그 내가 시험때 늦게 가서 “아직 아무도 안 나갔죠?!” 라고 외쳤던 거. 너무 쪽팔려서.

예은 : 흐흐흥. 이제는 쪽팔렸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잊고 지나갈 꺼라고 생각해서 괜찮... 그리고 사실 저는 관종이라. 다음 생애는 아이돌로 태어날래요.

재환, 현선 : 저는 유튜버.

현선 : 좀 더 특색있게, 뭔가. 음 근데 구독자 수가 안 올라...

정습 : 어린이집 차원에서 한 번 대대적으로

현선 : (정색)

갑자기

다희 : 정습이 머리 길이가 지금 딱 좋다

정습 : 감사합니다.

과거 회상)

다희 : 정습이 머리 뭐 했나?

정습 : 머리 길렀어요.

하하하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발제이야기

에은 : 소중한 기억, 가족보다 친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다희 언니나 은지. 잊고 싶은 건 트라우마가 된 기억들. 근데 요즘은 하이텐션에 기분 좋아서 그런 기억들조차 기억이 안난다. 그렇습니다.

정습 : 친구얘기를 아까 하면서, (무거운 이야기) 그래서 그 친구 포함 다른 친구들과의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아요. 잊고 싶은 기억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한정적?이라고하나?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을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하고 살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가면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나 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다희 : 저는... 아...? 소중한 기억? 많은데 음 기억나는 거는 음... 음... 이번 년도? 이번 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일도 많고 끝낸 일도 많고, 뭔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잊고 싶은 기억은 스무살 이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에 대한 기억 모조리...?

정습 : 왜요?

다희 :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사귀었어야 했는데, 너무 가볍게 사귀었지 않았나. 시작을. 앞으로 연애를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귀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시작이 라이트하고 나중에 정을 너무 주는 타입이었음. 내가 신중해야 신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음 좋지 않을까. 지금은 헤어지고 솔로인 텀이 긴데 이 기간이 너무 좋다 지금.

예은 : 나를 나답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정습 : 시작이 너무 신중해도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

예은 : 사바사~

다희 : 정주나 안정주나 늘 정주는 타입~ 연애를 하면 나중에 정을 많이 줘서. 너무 힘들다~.

어쨌든 중요한건 지금 년도가 너무 소중한 년도입니다~

지용 : 소중한 기억은 그냥 나도 올해가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다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제일 바쁜 올해일 것 같음. 학기 중이나 여름 방학이나 다음 학기이나 계속 바쁘다. 학기가 다 끝나고 대학원을 가야하고... 알바를 해야하고.... 바쁨의 연속.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좋은 양분이 되는 연도가 될 것 같다 일주일에 알바 한 번 나가면 별로 부담은 안 되더라구. 잊고 싶은 기억은 대학교 초반 1,2학년 때? 친구들이랑 싸웠던 기억들? 그냥 말싸움이긴 했는데 의견 차이 떄문에 싸우게 되었다. 나도 억울한 감정이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기고 싶었다. 그때 이후로 말의 조심성을 느끼게 되었다. 미안한 감정... 철 없던 순간들... 그러면서 공익을 하며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들이랑 단절되는 시간이 많다보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소심해진 것 같다.

정습 : 형은 예전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용 : 굳이 고르자면.) 예전이 더 편했던 것 같다.

예은: 막 해도 오빠가 막 말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뎅

현선 : 작년 3월에 헤어졌는데, 작년이 나를 위해서 보냈던 그런 소중한 기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작년이 너무 좋았다. 일을 안했지만 마음은 편하고 재밌고 놀았고 좋았다. 잊고싶은 거는 20살 때 가끔 창피했던 기억들, 유럽여행 갔을 때 아파트먼트에서 와이파이가 안되어서 그냥 누워서 생각만 했는데, 한 초등학교 때부터의 창피했던 기억들을 쭈욱 떠올려봤다. 그러니까 잊고 싶은 생각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는 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해탈의 느낌!

아 근데 나는 군대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듦. 그런가요. 여러분?

지용 :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도,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음.

정습 : 여사친들을 원래 막 만났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러워 짐.

예은 : 그래도 처신 잘 할 사람은 알아서 잘 하겠지.

재환 : 나는 오히려 군대에 있는 애들한테 연락을 더 했음.

###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거나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고, 기록(메모, 문서)은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과 기록 중 어느 것에 더 믿음을 가지고 보시겠어요?

재환 : 나는 사람 얼굴 기억 진짜 잘 함. 초등학교 동창, 국토대장정에서 만났던 사람 얼굴 다 기억함.

일동 : 와우.

재환 : 맥날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손님이 양아치 동창? 이었던 것도 기억함. 근데 아는 척은 잘 안함.

정습 : 근데 서로 아는 데 눈 마주쳤을 때... 그 어색함...

다희 : 치과를 갔는데 아는 언니가 있어서 놀랬음... (교회 다닐 때 알던 언니. 지금은 교회 안다님)

갑자기 분위기 마라탕... 지난 주에도 다희 3번 먹었다고 합니다. 순댓국에서 마라탕으로 바뀜 (TMI) 다음 모임 때 마라탕 먹어요~.

다시 발제로 넘어와서...

재환 : 애매하다...

현선 : 너가 발제 냈잖아...ㅋㅋ

재환 : 그래도 기록이지.

예은 : 객관적이니까 역시.

현선 : 근데 나는 좋은 기억을 기억하고 싶어서 일기를 쓸 때, 팩트를 기록한다기 보단 그때의 그 감정들을 적음. 그 때의 감정을 되살리고 싶어서... ex) 겨울 도서관의 느낌?

예은 :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할아버지가 손잡고 시장을 걸어가며 인형을 사주셨던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함. 나 또한 그런 기억들로 살아간다. 기억을 통해 살아가는데 기록이 이 기억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다. 내 인스타 블로그 일기장을 맨날 봄. (지용의 마음의 소리 : 음 신기하군.) 다 좋아요. 옛날 일에 후회하거나 쪽팔려 하지 않습니다.

정습 : 저는 딱 보자마자 고른게 기록! 기억이 안 좋아요.

일동 : 그런거 같더라.

정습 : 딱히 학창시절에 기억이 잘 안난다. 그래서 사진으로 기록하는 편. 군대에 있을 때부터 기록하는 일을 시작한 듯. 일기를 썼다. 전체적으로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록에 의존.

다희 : 어~ 저는 둘 다 중요한데, 어떤 과목을 필기하거나 그럴 땐 역시 기록이 중요하지만 질문을 보자마자 떠오른게 여행인데, 여행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는거 보단 좋은 것은 눈에 담기는 편. 그러면서 느꼈던 감정,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나는 것 같다.

현선 : 맞아 그럴 때가 있지.

다희 : 감촉, 시각, 청각 등에 신경을 쓰는 듯.

현선 : 나는 날씨가 기억에 난다.

재환 : 어릴 때 사진이랑 배경만 있는 사진을 비교하면 배경만 있는 사진이 더 기억이 잘 남.

다희 : 영화보면서도 느낀건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잘못 기록한 것들을 통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음. 기록에 의해서 기록을 왜곡. 기억 조작. 등등 때문에 기록도 위험한 것을 느낌.

지용 : 나는 정습이랑 똑같다 기억력이 안 좋아 우리 반은 다 외웠는데 다른 반에 어떤 애가 계속 나보고 선배님 선배님 이러는데 아직도 걔 이름을 모르겠다 zz 걔랑 싸운 이유도 걔는 다 기억하는데 나는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싸움 ㅎ 나 다이어리 쓰는 거 중에 5년 후의 나에게 쓰면서도 잊었던 걸 떠오르게 되더라구요 기록을 안하면 아예 생각이 안나는데 기록을 하면 기억이 갑자기 나서 좋다. 기억력이 안 좋아...

재환：외우는 거 잘 하는 애들 부럽다 의대.

그 외 이야기)

재환 : 형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 학생들 너무 없죠?

지용 : 너무 없어요!. 25명! 1반에! 중원초는 폐교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아 그리고 교생을 하면서 교육 대학원에 더더욱 가고 싶어졌어요! 등등 교육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픈 이야기. (신파 노노)

다음 모임은 7월 5일 (금) 예정.

직장인은 금요일이 좋아요!

현선 : 퇴근 시간을 정확히 몰라서

재환 : 7월에 현장 실습가야함...

에필로그)

다희 : 다음 모임 때 전주 영화제 엽서 가지고 올께요~ 엽서 진짜 괜찮아요. 스타워즈 레고 버전이라 진짜 반짝반짝

현선 : 이케이케

다희 : 영화 ‘다행이네요’ 꼭 한 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에에필로그)

정습 : 잠을 줄여야 하나? 12시부터 8시에 자는데...

재환 : 잠을 굳이 줄일 필요 없다네.

정습 : 시험기간 때도 밤 별로 안새는 듯...

다희 : 떠나지 않는 무비 크루... 가기 전에 화장실 좀...

진짜 끝!

1. 그저 스쳐지나갔던 인연이었지만, 다림에게 정원 혹은 정원에게 다림처럼여러분에게도 스쳐지나갔던 인연 중에 다림처럼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 있나요?

1. 왜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 일가요? 그리고 주인공들의 성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당시 연관영화엔 성이 대부분 없음 )

1. 정원의 사진관 처럼 옛 본인의 필름 사진 1장을 지참하구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가능하면 재밌는 이야기나 스토리가 될만한 사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영화는 영화의 진행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눈물샘을 자극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슬픈 장면은 어느 장면인가요?

1. 이 영화의 출발점은 '죽음' 장례식이나 돌아가신 어머님을 떠올리는 운동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의미가 살면서 바뀌거나했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1. 그리고 본인도 주인공처럼 시한부인생이라면 죽기전에 어떻게 살것인가요?

마지막 주인공읜 멘트인데 회상시켜도 좋을 만한 말이라서 남깁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19/09/20)**

근황토크

지용 : 졸업논문 실험 열심히.. 수업 끝나고 실험.. 진짜 징글징글하다. 대학원타입이 맞긴함,, 21학점들으면서.. 졸업 논문 준비하구 대학원 수업도 준비하구.. 원서가 18만원짜리 수업.. 대학원들어가면 박사님들 4,50대님들이랑 같이하구 조교선생님밑으로 들어가서 깍두기가됬음 >< 대학원 확정하구 그리고 바쁘시고 지치니까 홈트합니다 !하루 한시간씩 체력이 좋아져여,, 부럽.다.. 보드게임이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고 추석 때 할리갈리 익스트림.. 그다음은 못들엇어여; 형네집 궁금해짐… 예정은 25만원 들어오면 에어팟을 살꺼에여 아 그리고 !! 그 어벤져스 영상땜에 폴햄에서 연락이 와서, 걔네가 옷을 보내줬어 협찬!!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로 보내면 옷을 더준대여; 이건 나주면 좋겠다 ㅠ. 내일 열심히 호수공원가서 폴햄 오피셜 .. 우와… 5만원짜리 옷.. WO WHA!

재환스 ; 일단, 저번 무비크루가 끝나구서 제주도를 갔는뎅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을뻔 ! WHO! 사람들이 아침 비행기를 탔는데 난류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심해서 기도까지햇음 ㅠㅠ 떨어지고 ㅈ좌우로 흔들흔들하고.. 무셔벼 다행이 잘 살아있으시네여.. 첫번 째 식당을 갔느뎅 정기휴무라서 ..부터 시작해서 여행한 3일동안 비가 주륵주륵 밖에 비온다 주륵주륵 장소를 제주도.. 비와서 우도.. 였느뎅 ㅠㅠ 꿀잼>< 아 비자림에 비가올땐 운치가 있어서 비자림! 비가 많이와서 중간에 그냥 쉬기두 하구 나쁘진 않았음. 그때 거서 느끼면서 겨울에 다시가면 1230 ? 0123? 에 가면 첫 해를 한라산으로 간대여

개강했는데,, 역시,,, 졸작을 만들어야하느데 고통의 시간이 왔음..coming soon..;;

다음 달 까지 만든다는데 후 고생길이 훤함 ㅠㅠ 토익학원도 이제 다니시대여 종로?로

영어를 오랜만에 하는데 토익=스킬, 근디 너무 어려워 SO difficult ,, and be a rider!

It 's so easy 시간도 잘가구 ,, 진짜 고생안하고 그냥 오토바이타구 슝~ 시간도 슉!

성격이 좀 바꼇어,, ? 띠영..? 조용해졌어, 사람 만나는게 무서워졌어.. 그래가지고 쪼꼼 떨면서 왔어 지금도 좀 떨리고 ㅠ 좀 아휴 참 사람은 또 사람으로 치유받는거야 형 .. \*\*(힘내여 재환이형)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잘 넘어가려고 노력중.. 다 그런거지. 케비넷에 넣어줄게 ! 기대해

현선 ; 순천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년사업을 지원하는게 많아서 독립서점도 다녀오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았는뎅 오랜만에 한국말이 통하는곳을 다녀와서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도 많이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바구니호스텔? 뭐하는곳이지;; 암튼 좋은댈 다녀왔다 플리마켓도 다녀와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사왔는데 애가 사라졌어. !! ㅠㅠ 뿌러졌데여 여행자를 위한 배려가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바구니호스텔이어서.. 넘넘 좋았구 아이디어 좋다.. 청춘 창고라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음식하는 곳도 있구 순천 청년사업이 잘되있어서 좋았구여,, 그 다음엔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진짜. 밀린 일들이 많아서 서류를 다 밀어놨다가 미래의 내가 하겠지했다가 그 미래의 내가 고통받고;; 부모참여수업도 해야하느디.. 후 뭐가있으니까 스트레스 고통받고 .. 아휴 힘내여 달달한거 먹고 그림책 수업으로 시작햇는데 퇴사하고 뭐하고살지싶구여; 음.. 뭐하고살지? 괜차나 나도 몰라 그냥 맨날 열심히 살다보면 뭐가 되겠지 뽀뽀시키구?? 양아치네;; 이거이거 <--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고함쟁이 엄마? 라는 책이 있는데 펭귄엄마한테 쳐서 펭귄이 머리랑 다리랑 날라가느데 고함치는게 받는 상처를 다 분리되는 몸처럼 둿느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좋았어여 !!

정습 ; 전 그 동안 했던 것 4개월짜리 두 개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날 디질뻔 했어요 (박수갈채) 어떻게 밤새서 꾸역꾸역 했는데, 지팡이 만든건 2-30개 팀 사이에서 은상을 수상했어요. 올라가면서 울 뻔 했답니다. 혼자 어영부영했던 기억이 잔상처럼 스쳐가며 내 노력을 증명받는 기분이라 너무 좋았어요. 연구도 한 번에 확 해야하는게 있어서 추석에 4시에 자며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잘 되서 좋은 평가 받고 다른 교수님들이 사진찍어가시고 신선한 접근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며 등 두드려주고 가셔서 너무 좋았답니다. (인맥이 생겼다) 장기 프로젝트라 순간 순간 보상이 없어 힘들었는데 보상을 받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한 명은 거의 연락을 안하게 됐고, 기여한 부분이 달라서 상금을 차등분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서로 주고 받고가 잘 된 친구랑 앞으로 다른 일도 해보자고 이야기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상을 받으니까 넘넘 좋네요. 인사도 안하던 친구들이 인사도하고 입지가 넓어져서 좋아요

예은씨 ; 선물감사합니다 ! ,, 제주도 다녀왔어요 . 나 왔을 때, 이제 비 딱 그쳐가지고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비올때도 좋고 그쳣을때도 좋고 하긴.. 남친이랑 갔느뎅.. 안좋을 수가 없져 ㅎ ;; 그래.. 대천이가 그렇게 좋겠지 뭐 ㅋ

건대간이유가 교육봉사할게 생겨서 갔는데 알바도 가고 봉사도 가고 난리났느데 하다가 나사가 엄청 빠졌는데,, 요즘에 막 늦잠자고 물건 잃어버리고 ? 근데 다 잘되고..? 근데 현타가 좀와서 이제 정신좀 차려시키야 그래

봉사도 시작햇느데,, 고민이 생김? 갑자기? 교육봉사를 하는데 고딩을 가르치는데 걔가 이제 나한테 의지를 하느데 그 친구한테 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지 모르겠음. 그 친구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겟음. 쭝궈임 20살이구 술도 계속 마셔서 나사가 빠져가지고 토도하고 .. 으휴 토마토 ! 1+1/4병 . 왜 힘들지? 햇느데 이것저것 하니까 힘들지 내가 좀 쪼여줄게 ㅋㅋ 프로젝트도 해서 ? 그리고 연애를 잘하고 있습니다.. 후! 행복한 달달한 연애를 한답니다 대천이 파이팅!

\*\*\*\*\* 좋은사람~~ 있으면 지용이형 소개점;; <-- 광고 \*\*\*\*\*

다희 : 졸업스피치?를 하는데, 감명? 감동을 받아가지고 친해진 언니가 있는데, 남친이랑 7년을 사귀고 워홀도 같이가고 서로 집에서도 너무 잘 아시는? 남친분이 스피커였는데 나의 피앙세 올리비아..! Would you marry me… 근데 누나가 울음.. 또르르륵 ㅠ

그리구 끝내고 한강을 갔는데 갑자기 비와서 난리나구 근데 개서? 난리나구 미래얘기 좀 하고 근데 오늘 먼가 밝아졌음 >< 그리고 새롭게 마라탕에 새로운 제자를 드림 두둥 탁! 그리고… 체인스모커스 콘서트를 다녀왔음. 뚜루룹 뚜루룹 뚜루루루~ 뚜루룹 뚜루루루~우~ 이야 몸도 좋대여.. H O T ! 네,, 그리고 9.7에 생일이었데여 짞짝짞짞 늦었더라도 생일 축축축하 사운드오브뮤직 ost에 빠졋고, 아이패드 그림이.. 후 짱조음 은지랑 예은이랑 가희..언니? 에서 놀았음. 호텔에서 놀았데여 호텔 델루나~

1번 문항

지용 ;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ㅋㅋㅋㅋ 축구로 축구전날 이제 어캐 공을 몰까.. 어캐 드리블을 할까,, 이미지트레이닝 대로 상상할 떄로 똑같이 할때가 있어서 희열.. 스 !!

그거 말고는. 딱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축구 할때 그래서 실력이 늘었대여 오오오올

REDBUTTON ,, 지용이형과 어울리는 여성분 찾습니다

\*\* 현선누나가 내 팔찌보고 놀림 ..

\*\* 대학때 알게되면 형이 갑자기 죽음. 심장바비로 .. 근데 죽으면 손이 불어서;; 지문인식 조차 안되서 연락도 잘 안되고.. 으휴

다희 ; 요즘엔 상상 잘 안합니다 중고딩때 상상놀이.. 햇느데 벽지가 분홍색이라서 상상쟁이엿는데 요즘엔 이미지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면접이나 발표 부탁등을 호감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트레이닝 ㅎ 누나도 언능 좋은 남자 만나세여 영어로 꿈도 꾸고 올~ 분홍벽지보면서 무슨 상상 햇나여.. ㅎㅎ?

-p.s 내가 죽으면 , 장례식으 ㄹ어캐 하게 될지 상상을 해여 내가 죽으면 어캐 알려지고 어캐 가족들이 알게 되고 누가 먼저 알지…?

예은 ;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해요 고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뭘라 지하철에 치이고 그릴판에 손올리고..? 뭘라 이상해 그냥.;; 고통을 상상하네..? 월터는 상상을 하느라 막 멍 때리는데 나도 과거일을 상상하거나 혼자 웃고,,? 맥날에 이니할떄 헤드셋 끼는데 빵을 하면서 ? 웃긴 생각이 나서 혼자 웃음 혼자 웃음..? 혼자 아주 잘 웃음.. ? 있었던 일을 많이 생각해여 ;

정습 ; 일단 저는 상상을 거의 안 해요. 대신 누구 말이나 이걸 들으면 나는 내 멋대로 해석을 많이해요 ex)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난 저렇게 생각 안하는데'

교양시간에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해주시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적는 편입니다. 교수님이랑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와 인성이라는 교양수업인데, 교양이 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갔었어요.

교수님은 교양을 배우는 이유가 나 자체 자신에서 객관화,외화를 하는데 타인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하며 그걸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생각을 많이해요. 공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해석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를 하면서도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더라구요.

현선 ; 저는 상상을 너무 많이해서 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줄 알았느데 .. 그래서 막 그냥 그때 그때 순간 순간 상상을 너무너무 많이 해여 , ..알아서 하래 상상을 진짜 막

소설도 보면 이것저것 하고 사진? 보면 이것저것 아이디어 하고.. ..

영어공부할때는 외국인들이랑 상상하면서 영어대회하는 생각하면서 혼자 웅얼웅얼도 하고

영어버젼으로 IMFP?가 아닐까 생각,,, 여행 갈떄 그 당시에 연애인들 공유를 만나느거에여 공유가 도깨비가 여행을 가는거야 내친구들이랑 자기랑 같이..? 여행? 걔네가 렌터카 빌려서 같이 다니고 어쩔땐 내 일기장을 가지고 봐서 노래 만드는 것도 상상 해보고 여행가보고싶을 땐 나영석이 갑자기 와서 꽃청춘을 찍자고 연락오고 별별상상을 너무 해여

언니 스타일은 월터 \*\* 이터널션사인 빼고 다 봤음 방구셕? 방구셕? ㅋㅋㅋㅋ ㅋ키키킼 발음 구림 키키키킼 발음 구리데여 ㅎㅎ 이상한 상상도 너무 하고 이상한거 같아여 이누나;

재환 ; 암 레디 // 상상을 옛날에 되게 뚱뚱해서 그때 부터 ,, 살을 빼야겟다라는 생각을 햇어여 그냥 딱 운동을 하다가도 힘들어도.. 생ㅇ각을 해 살을 뺀 나를 상상함 하고 다시 해보자하고 다시 해봤져; 진짜 힘들게 살을 뺏 ㅠ 고생햇음.. ㅠ 요즘엔 공부를 하는데 준비를 해야할 시긴데 한시간하다가 못하겠다 생각을 또해여 내가 ㄷ나주엥 토익 공부를 하는이유 꿈을 이루는 상상을 하고 그냥 상상을 하는게 아니라 꿈과 관련된직업을 보면서 나중에 저게 나다 생각을 하고 ..

상상도 ,, 그 때 한번 과욕이었던게 한번 떳다가 가라앉아서 또 한번 떳을 때 그 때 내가 뜨기직전에 쑥 들어갔다 수익을 엄청나게 했다가 여기서 수익을 좀 더 벌면 상상을 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작이 났음 ㅠㅠ // 내가 빼라고 햇자나 //

아이폰 새로운 문서스캔기능! 또롱

2번

지용 ; 저렇게 까지 찾아가는건 말이 안되.. 무슨 그린란드를 가 .. 미친듯이 찾아본 다음에 없으면 아무거나 넣을 듯 ㅋㅋ 어캐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했을 거 같음. 모험인듯

다희; 질문의 의도가 그거였어여 그 중 하나 의 씬을 가져와서 헬리콥터씬인데 술취한사람이 운전하는거 절대 안타고 못 뛰어내림 상어도 상상인가 의문.. 상 ! 어니까 ㅋㅋㅋ

자기가 찾아야 겠다는 일념이 생긴 이후로 그 이후엔 상상이 없어짐.

예은 ; 주변인들한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게슨ㄴ데 경험을 해보고싶은데, 할수있을가..? 현실적으로? ;; 자기돈으로 다 갔는데 너무 기회비용이 큼 그린란드 티켓 2370$ 짱 비싸

281만

\*\* 왜 그 용돈 기입장을 보여줬지? 현실이라는 어필?

정습 ; (핸드폰 확인) 극단적인 선택이라서 감이 안 잡혀 생각을 많이했는데, 제 성격이라면 저지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한 곳이 너무 예뻐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현선 ; 저도 저도 저지를거 같아여 할꺼 같고.. ! 좀 깊이 ㅇ생각 안하고 일단 하는 성격이라서근데 헬기에선 뛰어 내리지는.. 미친 죽는거는 싫어여

재환 ; 난.. ! 난 우선 자부할수있는게 지갑을 받았자나 나였으면 진작에 찾았음..

글에 빠져서 으휴 ,, 못하는 이유가 근무복 입고 그냥 가방 들고 슝~ 난 그런거 못하고 가게되면 씻고 뭐고 다 할거 챙겨가고 술취한 사람 헬기…? ㅋㅋㅋ 그런짓 못하고 배도 막 후리해서.. 절대 못뛰어내릴 것 같고 나 같으면 패닉 갈거면 아예 세부일정을 잡고 찾아떠날 순 있을 듯 그. 비행기위에서 사진찍는건 너무 이해 안감

3번

지용 ; 취미는 영화 축구 독서가 새로 생김 드디어 처음으로 8권이 넘었음!! 한달에 한권 일년에 열두권이 목표인데 한달에 한권 하구 있고 수업시간에도 하나 읽고있어서 괜찮구 이번엔 채울수 있을 거 같아여 !! 파이팅,,, 보드게임 6개월 지났느데 이제 눈을 떠서.. 드라마보기도 취미긴 한데 요즘 잘 안보다가 지정생존자 보고 타인은 지옥이다 보는중 멜로가 체질은 노래가 좋아서 봄

다희 ; 저는 진짜 꾸준히 하는 취미는 팝송듣기.. 음악 ! 첨엔 2년전에 애플 뮤직에 무료로 함 쓰고 그 뒤에 까먹고 계속 구독햇는데 너무 너무 잘들어서 영화 보고 영화관에서 혼자보기 가 취미 진짜.. 예능보기 나는 뭔가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때 수동적으로 받아드리는게 좋아여 방구석은 잘보고 전지적참견이랑 .. 긁ㅈ거 \*4번하고 나혼자 미우새 집사부 , 다 좋아여 Good 롱보드 멋잇구 배드민턴 하고싶고 클라이밍 멋잇음 !! 와우.. 나두 해보고 싶

예은 ; 저는 근데 하고싶은게 하도 많아서 어디까지 취미 인지 모르겟음

일기 사진찍기 / 책읽기/ 기록하기/ 별거별거 많이 기록/ 검색도 좋아함/ 사람만나기/혼자하는운동/나사빠지느거도 취민가? // 그리고 이상형도 모으기도 취민데지용이형 이상형을 못모아서있으면 매칭점.. 스겜 인터뷰보는걸 좋아함 작가님들 인터뷰도 찾아보고 .. 후 작가님들

\*\* 지용이형 연애할 사람 구합니다 \*\*

재환'; 일단 취미로 말하자면 운동을 하는거 되게 즐겨합니다 시간 날때마다 달리고 홈트하고 새벽에 아침에 5시에 뛰고 그리고 이제.. 예능을 보긴 하는데 옛날 1night2day 다시 보는데 두번 째 정주행 효리네 민박도 즐겨보고 나두 즐겨봄 목적지 없이 떠나는걸 좋아합 유랑자네 예를 들면 알바가 끝나가지고 폰 키고 카쉐어링 어플켜서 음 3시간 예약하고 그냥 갑자기 떠난다. 그리고 이제 버스같은거도 시골에서 나혼자 따로 올라오는데 바로 못 올라와서 시골서 부산갔다가 서울올라오는거 타고 10시간 걸려도 좀 여유를 느낌 창밖을 보면서 주변에 야경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순간 편함..

기영이형이 누군지 몰라도 기차타는걸 좋아한데여

4번

지용; 4번 할껀데 반반인거 같아 너무 좋으면 찍을 때도 있고 안찍을 때도 잇음 공연에선 절대 안찍음 안보여도 실물을 많이 볼려고하는 공연 절대 안찍어여 가끔 찍을 때 좋은 건 동영상 인스타 스토리가 있는데 ,, 마드리드 하프공연 처음으로 돈줫느 줄만하네.. 멋졍

다희;' 사실 의견에 95% 동의를 하는데,,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카메라로 찍음 어디어디 공유하고 올리고 같이 느끼고 싶고,, 진짜 그러고싶은데 내면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께,,

예은; 기록을 중요하게 여김 제 인스타랑 기록을 진짜 많이 봐서 내가 보면서 진짜 난장판도 찍는거 좋아하고 그 상황과 사람들이 기억이 나니까 찍고 다시 남고 다시 보고 이런거 막,, 근데 그런거? 근데 왜 궃이 찍어 눈에 담아야지;; 그래도 난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고 찍고 담고 ,,

라이프 정말 좋아요 !! 라이프 전시회 제일 좋았음 .. ㅠ

정습; 하늘사진이 너무 좋아서 요즘 모으는중

현선; 저는.. 음.. 일단 막 찰칵 몇번 하다가 그 순간의 감정을 폰 메모장에 적어여 일단 사진 엄청 많이 찍고 찍고 싶은게 당연한 감정 아닌가

재환 ; 라이프 잡지 ,, 마지막에 월터가 표지였던 !! 이 장면 보고 새벽에 울음 ㅠㅠ 월터라는 사람이 무시당했단 느낌을 받다가 사진작가 얘가 자기의 사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누군가가 누구를 인정해준다는게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렷어 ㅠㅠ 그치 진짜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게 너무너무 좋지 ㅠ

다희; 그린란드에 갔는데 빨간차 파란차 있어요.. 리얼 미니멀,,, 우리는 렌트할 때 이것저것 엄청 따지는데

현선; 피냐 콜라다 // 영화에 노래가 나오는뎅

재환; 윙크 날릴 때 공감이 갔음.. 안되는거 ㅠㅠ 첨에 실망. ㅠ 저느낌알지 후 아 이영화 재밌겠다 ㅋㅋ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8:45

근황토크

G-dragon : 저는,, 11월 부터 빠르게 브리핑 let me show you yeah yo.. ;

일단 논문이 통화 pass by 졸업가능 갸꿀띠

시험도 끝남 수요일.. 와 처음으로 4.0이 높을거 같아여 근디ㅣ.. 살짝 실망 ㅠ

대학이 끝나고 바로 대학원생활 시작 !

알바했고,, 알바했고,, 모임하고,, 한 가득이고,,?

해리포터 정주행 준비중입니다. 후후 !

겨울방학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2월에 제주도를 갑니다. 가십쇼!

제주도 가십쇼 아 !... 어제 ! (1219) 포드 vs 페라리? 이게 뭐야? 이거 영화입니다.

이건 4DX를 봐야합니다. 차 몰라도 볼 수 있고 꿀잼보장,, honey 잼, 난 딸기잼

볼빨 공연보러갑니다. 이대에서 ..와… 다빗치가 보고싶었지만 시험전이라 ㅠㅠ

재환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 (bg 깔아주고) 졸작을 했습니다. 수상을 했습니다. 무엇을 햇길레? R P A ?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ㅎㅎ 어.. ㅎㅎ

같이 ㅎㅎ 같이 졸작 진행한 사람들 끼리 물들어올때, 노젓기위해 창업까지 생각 중입니다.

플랫폼 개발해서 기획서 제출까지 와우.. Wow;; 김동률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이번꺼는 100% 호불호 갈릴 갈릴레오, 나같이 김동빠는 수록곡을 다 듣는데 ,,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수록곡 위주로 해서 좀.. 모르는 곡이 많아서 아쉬웠 ㅠ 유명한걸 듣고 싶었지만 아쉽.. 거기서 클래식과 피아니스트 연주도 해줘서 좋았습니다. 김정환 피아노 상탄 사람? 여름의 끝자락 ft 한

그다음에.. 카카오 지원했으나! 바로광탈 빛의 속도보다 빨랏음.. 와우 아인슈타인도 놀람 인터스텔라였어;; <- 새로운 표현.. Good;;

맥날 때문에 취업기회를 다 놓친거 같아서 ㅠ 삼성 멀티캠퍼스 뭐시기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맥날 고용보험 때문에.. 못햇ㅇ; 맥날고용보험때문에 무슨 카드를 발급 못받아서 아효..

그리고 저도 1월 7 8 9 10 에 제주도 갑니다. 떠나요~ 둘이써~ 훌훌 털어버리고~ 나에게도 봄이 올순 있었는데, 왜 안왔어 ? 살다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번호를 받았음 ㅎ 근디 내가 참. 축구좀 하네;; 학교카페에서 공부하는데 혹시.. 여자친구가.. 띠로리..? Inteiligent한 모습에.. 후후

나란 남자란;; 자기 인생을 너무 막 사는 ,, 생각없어 보였던.. 아쉽네요 그분 나중에 봐여 ㅎ 이번에 느낀건 가장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하셔서 좀.. 가슴한켠이..

다희씨. : 저요? ! 네 너님이요 . 서울아트북페어 다녀왔어요. 리미튀드 에디션;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도 다녀오고. 7개월의 대장정이 끝나고 졸업을 하고 와우.. 같이 엄청 친해졌어요.. Tell me your story .! Break up with him. OMG 그럴수있죠. 그 분이 여행을 다녀오고 맘이 떠나서..

잘했네 잘헀어 (남자가 예은이 햇네?) 지금 내 현재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끌어서 답답햇음.. 왜 바쁜거? 취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 후후 여기 일찍와서 입사지원 준비하고 자유양식이라서.. 맥날크루,,, 무비크루,,, 여미크루까지 안착하시는 걸로…

바쁘네 생각이 많을 시기입니다. 몸이 아파짐.. 잠을 맨날 4,5시에 자고 화장실도 자주가고 ㅠㅠ

(힘내요 누나 파이팅,, ㅠㅠ !! )

Yen : gang gang 막학기가 끝났어요 ㅠ 졸업은 바로 하고… 유

Zoo쌤 : 요새는

1번 문항

지용 ;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ㅋㅋㅋㅋ 축구로 축구전날 이제 어캐 공을 몰까.. 어캐 드리블을 할까,, 이미지트레이닝 대로 상상할 떄로 똑같이 할때가 있어서 희열.. 스 !!

그거 말고는. 딱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축구 할때 그래서 실력이 늘었대여 오오오올

REDBUTTON ,, 지용이형과 어울리는 여성분 찾습니다

\*\* 현선누나가 내 팔찌보고 놀림 ..

\*\* 대학때 알게되면 형이 갑자기 죽음. 심장바비로 .. 근데 죽으면 손이 불어서;; 지문인식 조차 안되서 연락도 잘 안되고.. 으휴

다희 ; 요즘엔 상상 잘 안합니다 중고딩때 상상놀이.. 햇느데 벽지가 분홍색이라서 상상쟁이엿는데 요즘엔 이미지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면접이나 발표 부탁등을 호감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트레이닝 ㅎ 누나도 언능 좋은 남자 만나세여 영어로 꿈도 꾸고 올~ 분홍벽지보면서 무슨 상상 햇나여.. ㅎㅎ?

-p.s 내가 죽으면 , 장례식으 ㄹ어캐 하게 될지 상상을 해여 내가 죽으면 어캐 알려지고 어캐 가족들이 알게 되고 누가 먼저 알지…?

예은 ;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해요 고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뭘라 지하철에 치이고 그릴판에 손올리고..? 뭘라 이상해 그냥.;; 고통을 상상하네..? 월터는 상상을 하느라 막 멍 때리는데 나도 과거일을 상상하거나 혼자 웃고,,? 맥날에 이니할떄 헤드셋 끼는데 빵을 하면서 ? 웃긴 생각이 나서 혼자 웃음 혼자 웃음..? 혼자 아주 잘 웃음.. ? 있었던 일을 많이 생각해여 ;

정습 ; 일단 저는 상상을 거의 안 해요. 대신 누구 말이나 이걸 들으면 나는 내 멋대로 해석을 많이해요 ex)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난 저렇게 생각 안하는데'

교양시간에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해주시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적는 편입니다. 교수님이랑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와 인성이라는 교양수업인데, 교양이 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갔었어요.

교수님은 교양을 배우는 이유가 나 자체 자신에서 객관화,외화를 하는데 타인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하며 그걸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생각을 많이해요. 공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해석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를 하면서도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더라구요.

현선 ; 저는 상상을 너무 많이해서 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줄 알았느데 .. 그래서 막 그냥 그때 그때 순간 순간 상상을 너무너무 많이 해여 , ..알아서 하래 상상을 진짜 막

소설도 보면 이것저것 하고 사진? 보면 이것저것 아이디어 하고.. ..

영어공부할때는 외국인들이랑 상상하면서 영어대회하는 생각하면서 혼자 웅얼웅얼도 하고

영어버젼으로 IMFP?가 아닐까 생각,,, 여행 갈떄 그 당시에 연애인들 공유를 만나느거에여 공유가 도깨비가 여행을 가는거야 내친구들이랑 자기랑 같이..? 여행? 걔네가 렌터카 빌려서 같이 다니고 어쩔땐 내 일기장을 가지고 봐서 노래 만드는 것도 상상 해보고 여행가보고싶을 땐 나영석이 갑자기 와서 꽃청춘을 찍자고 연락오고 별별상상을 너무 해여

언니 스타일은 월터 \*\* 이터널션사인 빼고 다 봤음 방구셕? 방구셕? ㅋㅋㅋㅋ ㅋ키키킼 발음 구림 키키키킼 발음 구리데여 ㅎㅎ 이상한 상상도 너무 하고 이상한거 같아여 이누나;

재환 ; 암 레디 // 상상을 옛날에 되게 뚱뚱해서 그때 부터 ,, 살을 빼야겟다라는 생각을 햇어여 그냥 딱 운동을 하다가도 힘들어도.. 생ㅇ각을 해 살을 뺀 나를 상상함 하고 다시 해보자하고 다시 해봤져; 진짜 힘들게 살을 뺏 ㅠ 고생햇음.. ㅠ 요즘엔 공부를 하는데 준비를 해야할 시긴데 한시간하다가 못하겠다 생각을 또해여 내가 ㄷ나주엥 토익 공부를 하는이유 꿈을 이루는 상상을 하고 그냥 상상을 하는게 아니라 꿈과 관련된직업을 보면서 나중에 저게 나다 생각을 하고 ..

상상도 ,, 그 때 한번 과욕이었던게 한번 떳다가 가라앉아서 또 한번 떳을 때 그 때 내가 뜨기직전에 쑥 들어갔다 수익을 엄청나게 했다가 여기서 수익을 좀 더 벌면 상상을 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작이 났음 ㅠㅠ // 내가 빼라고 햇자나 //

**MOVIE CREW** Stranger than Fiction

**근황 토크**

현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말을 안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애기들이랑 다시 만나니까 목이 다시 쉬더라구요. 그리고 언니랑 유튜브를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당 그리고 아는 언니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 갔다가 왔구 우리 애기들이랑 애벌레를 키우는데 대박 귤차도 나눠서 먹고 좋았어용

지용) 방학을 했구 볼빨간사춘기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왔어용 내가수 ??.. 사재기 한 가수에게 박수 한 번 치지 않아서 너무 자랑스러웠당 대학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대학원 업무도 하고 있고 다음주에 학회도 갈 예정이에용 그리구 어벤져스 친구들과 참치회를 35만원어치 먹었구 여름에는 블라디보스톡을 가기로 했어용 매달 회비를 모아서 그러기로 했당 제주도를 이제 드디어 예약을 했습니당 헬스를 하구 있어욤 오늘도 하고 왔어

(현선 – 갑자기 티엠아이인데, 갑자기 학부모가 쓰러지셔서 느낀 게 몸 관리 잘 해야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히) 저는 저번에 그 첫 지원으로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봤어요. 상향이었고 기대도 안했는데... 연락이와서 봤는데 광탈... 그래도 좋은 경험. 면접관 중에 좋은 사람이 있엇는데 금요일에 면접 보고 월.화 중에 연락 준다했는데 전화를 줘서... “면접 보셨는데,,, 아.. 정말 죄송한데...~~~~ 못 하신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더 적합한 분을 뽑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갬동 받아서 좋은 마무리 훈훈. 지금은 지원하면서 포폴 만들고 수정하고 하는 중~ 만들면서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면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주 월화에 강릉 여행갑니다...~ 알바를 관둘라고 했는데 붙을 때 까지는 해야겠다~. 취준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 잘 안했는데 어쩌다 하게 되었는데, 얘기하다보니까 왈칵...... 근데 부모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월 말에는 맥날에서 신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2월은 미정... 흘러가는 대로~ 이다희였습니다.

예은) 짜증짜증ᄍᆞ증짜증ᄍᆞᅟᅳᆽ아ㅡ자으ᄍᆞ증짜증 저는여 오늘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왔더니 비몽사몽하지만! 출판관련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인디자인 수업은 다 끝났구 동백꽃필 무렵이랑 멜로가 체질 다 봤어용 오디오 안 비는 드라마로 유명해서 호불호가 있더라구용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까지가 개정 전이라고 했던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볼라구요 그리구 200일 올해 초에 그랬어욤 헤어질 각 재고 있다는데 구라 잼 어제도 가위 눌렀는데 술 먹고 전화와가지구 짜증 그리고 흑임자에 빠져서 특히 투게더 흑임자가 맛있어용 그리구 화양연화 사장님이 흑임자 페이스트를 사서 만들어 주셨어용 근데 샷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랑 다미 둘 다 잠을 못 자서 실패...

정습) 제주도를 혼자 갔다가 왔어용 재환이랑 간 줄 .. 혼자 여행하는게 잘 맞는 것 같아용 막 혼자 물어보고 다니구 그랬어용 그냥 몸이 이끌리는 데로 자유롭게 생각한데로 움직였어욤 쓸쓸했지만 요번에는 오름 오르고 그래서 좋았어용 (선물을 주섬주섬) 곤밥 순대국밥 사장님이랑 소주 한 잔 핵인싸 매주 금요일에 A.I 특강 듣구 있어욤 다음주에 제주도를 또 갑니다 친구들끼리 가욤

**새해를 맞이하여 주인공의 모습이나 작가의 모습 혹은 파스칼의 모습중 닮고 싶은게 있을까요?**

정습) 아 그거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파스칼 그 사람 보면서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원들한테 쿠키를 만들어 주면서 행복함을 얻었다고 한 점에서 나도 좀 공적인 일을 해보고 싶당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봉사를 하고 싶당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당

현선) 파스칼이 인상 깊었당 하버드대를 갔는데 그걸 포기하고 마음이 끌리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종이인형은... 그런가 옆에 사람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용

지용) 저는 교수님이 정말 멋있었어용 자기 일이 아닌데도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멋있었다 내 롤모델은 백종원이에용 요즘 유튜브를 하잖아용 자기가 원래 홍콩반점에서 내려던 메뉴였는데 다 뿌리더라 멋있었어용 아 새해에 하고 싶은거도 있었는뎅 이번 새해는 아니구 꼭 하고 싶었던 게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당 언젠가 여유가 된다면 ...

다희) 저는 그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ㅡ 케이 에펠 ... 전남친 영어 이름이 케이였어요. 그 사람한테 본 거는 전문성, 파스칼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케이 에펠은 비극 작가로 유명하고 그런데 결국 주인공을 위해서 자기 소신을 버리는 모습이 멋있었다. 소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릴 수 있을 땐 버리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다. 나이 들수록 고집만 는다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예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수용성이 높은 느낌이었당 주인공이나 작가 파스칼 등 자신이 살고 있었던 루트가 있었는데 고집을 버리는 모습이 인상깊었당

**비극 전문 작가인 케이 에이펠은 영감을 얻는 방법을 주로 직접 체험하는 것에서 얻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는 본인만의 특별한 장소나 사물, 혹은 인물이 있나요?**

다희) 핸드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에서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현선 – 맞아 너 뭐 많이 읽는 것 같아) 거기서 글이나 뉴스레터 이런거를 구독하기도하고, 인스타그램은 약간 회전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개를 막 보다가 관심있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고 보고. 사람이나 장소보다는 인스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은) 영감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칼럼이나 영화에서도 뭔가 좀 여기서도 따지면 쿠키같은 거도 상징성이 있고, 흔한 소재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해서 엄청 인상깊었어용 마음 잘 맞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영감을 얻어용

정습) 저는 유튜브하면서 알았는데 막 흥얼거리면서 만들게 되는데 차 안에서 노래 혼자 주절주절 크게 틀어 놓으면서 들으면 받고, 하늘을 볼 때도 얻어용 공부할 때는 모방을 많이 합니당 비슷한 케이스를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썼구나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해석합니당

현선) 영감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말에 공감을 많이 합니당 유튜브도 그렇고 진짜 답이 안 나오고 모르겠다 싶으면 책이나 매거진을 보면서 터닝포인트를 찾아용 여행도 그렇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떠나구

지용) 저는 딱히 영감을 받아서 쓸 일이 없는데 영화보고 인스타그램에 글 남길 때 얻어용 특히 한 줄 평을 남길 때 내 생각을 딱 한 줄로 남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남들 것두 보면서 모방하기도 하고 그래용 그러면서 영화보는 것 자체에서도 영감을 얻을 때도 있어용 장르에 따라 꽂히면 더 보기도 하구 해리포터는 최고

**갑자기 영화모임 아이디어**

1. 멤버를 바꾼다 : 김재환 나가리
2. 초청 게스트 :　낯가리는 사람 노노 / 맥날 게스트로만
3. 크게 만들어서 돈 벌자

**영화의 결말에서 바뀌기 전의 결말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바뀌고 난 후의 결말이 마음에 드는지? 본인이 헤럴드나 케이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예은) 나는 완전 바뀐 게 마음에 드는뎅 그것까진 생각을 안 했는뎁 그냥 마지막 대사들이 그냥 시사하는 바가 희생 끝인데 바뀐 결말이 좀 더 시사하는 바가 많고 그리고 매번 작가는 사람을 죽이기로 유명한데 그 부분에서 정세랑작가 생각났어용

정습) 바뀐 결말보다 아닌 결말이 맘에 들었당 그리구나서 작가가 추모한다거나 그랬으면 했는데 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멋있었당 나중에 어차피 죽을 운명 이런 소리했을 때 완벽한 결말이라고 하는데 ... 그냥 내 느낌에 좋았당

현선) 나두 일단 내가 교환학생갔을 때 비극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비극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공이 죽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말 자체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바뀐 결말이 더 좋았당 비극 작가로서 굳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의미를 주어서 좋았당

지용) 아 저는 둘 다 좋긴 한데 아쉬운 점이 많았당 2퍼센트 부족했당 나였으면 미완의 걸작으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 둘 다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당 갑자기 꼬마가 튀어나오고 아쉬웠당

다휘) 저는 아 근데 사실 그 영화 전체적인 내용은 좋고 결말도 전이랑 후 둘 다... 음 후가 더 좋긴했지만... 영화가 트루먼쇼랑 비슷해서 음 트루먼쇼는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조금 재밌게 보진 못 한 듯. 몰입이 덜 됐다. 둘 중에 고르라면 후자가 더 좋았다.

주인공 연기를 잘 했어 매력있구 요즘 영화같았다

***Movie Crew 19th,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I hate the way you talk to me / and the way you cut your hair

난 당신이 말하는 방식도 싫고, 머리 모양도 싫어요.

I hate the way you drive my car / I hate it when you stare

차를 모는 방법도, 나를 쳐다보는 눈길도 싫어요.

I hate your big dumb combat boots / And the way you read my mind

난 당신의 크고 무식한 전투화도 싫고, 내 마음을 읽는 것도 싫어요.

I hate you so much that it makes me sick / It even makes me rhyme

날 화나게 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 싫어서 시까지 썼어요

I hate the way you're always right / I hate it when you lie

난 당신이 옳은 것도 싫고, 거짓말을 할 때도 싫어요.

I hate it when you make me laugh / Even worse when you make me cry

난 당신이 날 웃길 때 싫고, 울릴 땐 더 싫어요.

I hate the way you're not around / And the fact that you didn't call

난 당신이 곁에 없는 게 싫고,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싫어요.

But mostly I hate the way I don't hate you

하지만 가장 싫은 점은, 당신이 싫지 않다는 점이에요.

Not even close, not even a little bit, not even at all

조금도, 정말로 조금도, 싫어할 수 없다는 거에요.

# **근황토크**

**현선** – #첫출근 #첫자취 #적응

저는 8월에 첫 출근을 했고, 적응하기 위해 정신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너무 좋고.. 회사분들도 너무 좋은데 저는 원래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역시나 쉽진 않은 것 같아요ㅎ ㅡ ㅎ! 그래도 팀장님이 진짜 기초부터 엄청 열심히 알려주고 계셔서 업무들을 아주 조~~금 파악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신 숫자 다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매출 분석을 시작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업무 자체는 재밌는 것 같아요+ \_ +.

근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낯선 공간) 주말엔 잠을 몰아서 자고 있어요; 어제 오후 2시에 일어났다가 영화모임 서면으로 바뀌고 7시에 자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아홉시에 일어났어요; (교대로 재택 시작 안 했으면 죽었을 듯) 대신 10월 달엔 이사 계획이 생겼고 태어난 지 26년만에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 쏘리 질러~~~~~~ yeah~~~~ 합정 근처로 ~~ 회사 셔틀 타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오 예 에 블 바 뤼 쏘 리 질 러~! ~! 다음 달 영화모임에서는 회사가 많이 익숙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은 –** #독립 #집구하기 #새로운시작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 영화모임에 빠진 이유가 이때로 밀렸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독립’입니다. 사정상 당장 한 달 이내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부터 저에게 맞는 전세대출과 조건에 맞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구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나름 풍파를 겪으며 살아왔다고 느꼈는데 정말 찐풍파였습니다☺ 집을 구하는 동안 2-3kg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날 때면 다시 충전해서 갈 것입니다.. 지금도 빵 먹는 중)

일 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각종 집 구하기 어플 보기 + (서울~수도권)부동산 전화돌리기 + 점심시간 혹은 퇴근 이후에 집 보러 다니기 + 새벽에는 전세대출과 부동산 용어 공부하기 끝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받으려는 대출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대출 신청까지 완료하여 지금은 대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고도 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생각나는 거라고는 오직 ‘집’뿐이네요..^^ 아직도 집 얘기만 하면 두통과 복통이 찾아온답니다.. 혹시 나중에 전세대출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릴게요. 아무도 없이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하하

다음에 여러분을 만날 때면 코로나도 잠잠하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안정된 상태였으면 좋겠네요 ☺

**정습 –** #첫출근 #첫자취 #연구직인턴 #블로그

팔월 구월은요..저는 9월에 첫 출근을 했고.. (현선이 누나가 이렇게 시작했길래 ㅋㅎ)

연구원에 이제 2주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구직 인턴이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남들이 너 거기서 뭐해? 할 때 막 쉽게 공감 갈정도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ㅠㅠ 그럼에도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연구 인턴은 교내 장기 프로젝트 같다..? 작년에 연구실에서 했던 과정을 다른 주제로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ㅋㅋ 그래도 ! 작년과 달리, 일을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어서 하다가 많이 지치긴 해도 저에게 정말 알차고 감사한 시간이란 걸 요즘 항시 느낍니다

전 9월부터 천안터미널 근처에서 자취를 벌써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설레고 기쁜 것도 많았는데 일에 치여서 집에 왔을 때 괜히 공허하고 외로운 기분이 들기도 해요(현선 누나 참고)

마지막으로, 일하고 나면 괜히 혼자서 집에 쉬고 누워있기 너무 아쉬워서 요즘 블로그에 글 쓰기를 다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노력들인 만큼 제 블로그가 많이 활성화되고, 댓글도 많아져서 상당히 재밌네요 ㅋㅋㅋ

**다희 –** #휴가 #재택근무의연속 #생일주간

일단 휴가부터 말해볼게요. 무비크루끼리 여행 다녀오고 나서, 총 세 번의 휴가를 더 갔어요. 회사사람들이랑 양양, 대학교 친구들이랑 양양, 속초 그리고 이디야 사람들끼리 가평을 갔습니당 회사사람들이랑은 ㅋㅋㅋㅋ양양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숙소에서 바비큐먹고 술먹고 끝… 대학교 친구들이랑도 양양은 갔지만 술집 기피하고 바닷가 앞에서 돗자리 피고 놀았네요 덕분에 인생사진 건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편한 친구들이랑 가서 특히! 이디야 사람들이랑도 사람 바글거리는 백운계곡 피해서 숙소 앞에 조그만 계곡이랑 숙소 수영장에서 사진 건질라고 엄청 노력했어요 ㅋㅋㅋ 코로나와 함께 한 휴가였지만 일주일 쭉 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당

그리고 나서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마라고 부르고 지구온난화라고 쓰는 기록적인 긴 폭우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그게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일주일씩 계속 연장이 된거에요 재택근무가… 벌써 세어보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회사에 갑니다! 2.5단계가 2단계로 낮춰지면서 일주일에 1일출근 4일 재택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 사실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냥 매일 회사가도되니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개새끼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재택근무 하는 중에 바깥을… 거의 5일 나갔나..? 진짜 집에만 있었어요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걸리면 진짜.. 울거야 아 참 그리고 이 와중에 저는 생일주간을 맞이했답니다 바깥을 나간 5일 중 2일이 이것때문인데용 작년에도 링링 태풍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번연도는 마이삭과 코로나와 일하는 월요일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하는 생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냥 응팔이랑 청춘기록 비밀의숲에 빠져살아용

# **Q1.(by지용)**

**1. 영화 속에서 카메론과, 조이의 부탁(?)에 의해서 캣을 꼬시던 패트릭은 결과적으로 캣을 좋아하게 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캣이 결국 알게 되고 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좋아하던 혹은 나와 사귀던 누군가가 사실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처음에 나에게 접근했던 것이라면, (결국에는 나를 좋아하게 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했을까요?**

# A1.

**현선 -** 저는 보면서 웹툰 <간 떨어지는 동거>가 생각나더라구요. 웹툰 속에 ‘계선우’라는 인물이 주인공 ‘이담’을 꼬시는 걸로 돈내기를 하고(패트릭의 상황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결국은 ‘이담’을 실제로 좋아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웹툰을 볼 때도 생각했지만.. 이성적 판단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히스 레져 껍데기(?)로 그런다면.. 수많은 대화에 거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고 만날지도 ;;

**예은 -** 결국엔 나를 진짜 좋아하게 됐더라도 그 사실을 안 순간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헤어질 것이고, 이미 마음이 커져버린 상태라면 상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을 거고요.

사람 사이에서 특히 연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신뢰에 금이 가면 이후의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야기는 들어볼 듯 해요.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없애뜨리지 못 하는 성격이라서요.

**정습 -** 제가 Q4로 남긴 질문이 사실 지용이 형의 발제를 보고 영화의 캣과 패트닉에 만남에 관해 떠올리면서 심화해본 질문이었는데요. 패트릭의 접근이 설령 돈 때문이었을지라도, 전 이것도 다 둘의 운명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첫 인상과 처음 접근한 이유! 가 당연히 연애와 그 사람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유가 어찌됐든 패트릭은 캣을 좋아하고 캣도 패트릭을 좋아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패트릭이 처음에 돈을 거절했다면, 그 둘은 그럼 그렇게 이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저런 경우에 시작은 다소 불투명한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본인의 불투명한 시작을 인정하고 맘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연애랑 인간관계는 정말 어려운 거 같아여 정말로

**다희 –** 오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걔와의 추억 때문인지 쉽게 쳐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밖에다 버린 쓰레기를 다시 집에다 들인다하죠? 어렸을 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쓰레기를 구분 못하는 저지만 그래도 나름 그런 경험들이 모여 성장했다고 믿어요 아무튼 그때의 저는 과거의 의도가 어쨌건간에 현재에 충실한 마음이었어서 그를 믿어주었답니다 최종적으로 헤어지게 된 건 이 이유가 아니였어서 연관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있었어요 사귀는 도중에 다른 이유로 불찰이 생기면 괜찮았다가도 그 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건가? 싶은? 아 쓰다가 사실 저도 사귀던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도 그러고 나서 저에게 진짜 마음은 너가 너무 좋지만 머리론 안된다는 걸 안다고 하면서 직접 말한 적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또 생기면 저는 바로 헤어질 것 같아요 겪어봐서요

# **Q2. 다희**

**2. 캣은 조이와의 지난 연애 후 본인 인생에 대한 이정표를 건설했는데요, 무비크루들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거나 큰 깨달음을 얻었던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오**

# **A2.**

**현선 -**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스물 두 살 때 떠났던 유럽여행인 것 같아요. 그 때 이후로 제 인생에서 작고 소듕한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조금 무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 것 같아요. 두려움을 깨고 나아가는 법을 아주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일을 오롯이 혼자 해 본 (착각이겠지만) 첫 번째 경험이라 터닝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은 -** 여러 터닝포인트가 있었겠지만 딱 생각나는 건 고등학교 2학년, 휴학, 그리고 맥도날드입니다.

원래 저는 낯가림이 엄청 심하고 조용한 애였어요. 거절도 못 하고 나쁜 소리도 못 하고, 나쁜 소리를 들어도 상처는 엄청 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그런 답답한 애요. (물론 예전에도 친한 친구들한테는 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래 사겼었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낯가림 따위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는, 전형적인 시원시원 반장 성격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친해지고, 그 친구의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결국 그 친구와 사귀고 시간이 흘러가며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된 것 같아요. (불의를 당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저를 보며 왜 너는 말도 못 하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휴학 때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구성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맥도날드 일을 본격적으로 많-이 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성격이 아예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아예 바꼈다기보다는 원래 안에 있던 성격이 겉으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존의 성격이 아예 사라졌다기보다는 살짝 리버서블 자켓 느낌? 기존에 겉에 있던 성격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성격이 겉으로 나오고. 고렇네요. 리버서블 킴

**정습 -** 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정표를 떠올려 볼 떄, 이정표가 한 가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걸어가고 쉬지 않되,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추구했기에, 그 만큼 다양한 이정표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캣처럼 최우선적인 것을 하나 고르자면, 군대가 아닐까 싶네요. 저도 예은이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은근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지금도 아직 남아있구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면서 그런 제 자신에서 탈피하고 눈치 안 보고 진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봐야겠다!! 라고 다짐했거든요. 그 이유는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고 힘든 훈련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왜 사는 걸까? 산다는 것을 뭘까? 에 대해 많은 생각과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 이야기를 꺼내자면 너어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군대에서 고심과 고된 훈련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겪은 게 눈치보지 말고 살자!의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다희 –**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공부를 꽤 했어요 친구를 잘 만난 탓이었죠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전교 10등안에는 못 들었지만 반 안에서 늘 상위권이어서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 그 때는 제가 공부를 하는 편인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 해서 같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서 상도 많이 타오고 EBS에 뭐 학교 어쩌고로 뽑혀서 출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 하니까 저는 제가 잘 하는 줄 몰랐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반장해봐라 해서 손들었는데 뽑혔어요 그러고나서 원래 친했던 남자애도 반장이 되면서 걔네 반(남자반) 저희 반(여자반)끼리 조인을 많이 해서 거의 조인 뭐 할 게 있으면 당연히 두 반이 합쳐서 했어요 그러다가 언젠 합반을 했는데 그 떄부터 걔네 반 남자애랑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제 생일 때는 걔가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며 번호를 따갔습니다 그 층 애들이랑 선생님들 다 나와서 호응하고 ..그 때 저는 반했나봐요 그 친구의 적극성에…~~시발~~  아무튼 그 날로 저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내내 야자를 했지만 매일 공부하진 않았어요 늘 그 친구는 매일 매교시 쉬는시간에 저를 보러왔죠 점심, 석식 먹고 보고 ..그리고 고 3이 되었고 걔는 조금만 공부하면 잘 하는 애였고 진짜 걘 공부 하더니 경희대를 갔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그러고 저는 망했구 대학교 2학년 초반에 헤어졌는데 그 때가 딱! 저의 터닝포인트입니다 ^ ^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었죠 진짜 친구따라 강남간다 2탄이었어요 이후로 저는 친구에게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맺고 끊음을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없앴어요 지금도 완벽하게 그러진 못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 **Q3. 현선**

**3. 캣은 독립적인 삶을 위해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진학했는데요, 앞으로 캣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상상해보아요!**

# **A3.**

**현선 -** 지금쯤 캣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밴드를 시작했을지, 패트릭과는 아직도 만나고 있을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 살고 있을지 아주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상상해봤을 때 캣은 적어도 대학 생활동안은 밴드 활동을 하며 깊은 내용이 담긴 노래들을 써냈을 것 같고, 밴드 활동을 지속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직업을 선택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패트릭과는 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나중에 서로 30대 중후반쯤 자신들이 원하던 직업에서 어떤 자리를 잡았을 때 둘이 만나게 될 것 같은 상상을….

**예은 -** 대학에 진학한 이후 몇 달 되지 않아 혹은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패트릭과는 헤어졌을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은 등록금을 한 번도 내지 않고 과탑을 찍으며 열심히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후배들이 “저 언니 너무 멋있지 않아..?” 하는 그런 언니, 하지만 막상 말 걸기에는 조금 무섭고 멀리서 동경만 하는 그런 언니ㅋㅋㅋ

전혀 가족들을 그리워 하지 않고, 자유를 즐기며 잘 살았을 것 같네요. 제발 나도 대출심사 제발 별 일 없이 잘 되었으면. 제발제발제발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정습 -** 캣과 패트릭의 이후 연인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에서의 대학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성.. 잘 모르곘어요 사실 ㅋㅋ 전 오래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기 전 둘이 같이 있는 시간 동안은 그 이후를 걱정하기 보단 현재 행복해 하면서 살았으면 싶네요.

그리고 영화에서 본 캣과 패트릭은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사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었던 캐릭터였기에 저는 미래가 별로 걱정되지가 않네요! 무슨 일을 하던 무슨 공부를 하던 스스로 자유롭게 즐기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런 삶을 제가 동경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다희 –** 캣이 워낙 주체적인 성격이라 계속 사귀어도 혼자 잘 했을 것 같고 만약 헤어졌어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패트릭은 더 빠졌겠죠? 그러다가 캣이 너무 혼자 잘 하니까 어느 날은 캣이 패트릭에게 무심하게 대하고…패트릭은 그 전의 온갖 서운한 감정이 함께 몰려와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캣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가! 이러고 패트릭은 그래! 너 나 없이 잘 살 것 같아! 아주 넌 너만 잘났지? 너 완전 별로야 남자한테 완전 별로인 여자라고 나라고 편했는 줄 알아? (응팔 성보라 전남친 대사) 하며 떠나가지만 1년 뒤 그 둘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고… 캣을 잊지 못했던 조이도 그 같은 장소에 있어 조이가 캣에게 집적거리자 빡친 패트릭은 조이를 팹니다 조이는 너 무슨 상관이야! 헤어진지 오렌지잖아! 하지만 패트릭은 그 말을 듣자 자신이 아직 캣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캣의 자취방 찾아가서 오열을 하며 사귀었다는 이야기…

# **Q4. 정습**

**4. 캣과 패트릭의 사랑은 카메론이 비양카에게 첫 눈에 반하고, 비양카와 잘 해보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로 부터 시작할 수 있었죠. 카메론의 계획? 방법?이 스노우볼링 되어서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으나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치 못 챌지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주고 싶고 그리고 받고 싶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이유 너무 맘에 들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 A4.

**현선 -** 늘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그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삶이란 계속해서 누군가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모두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누군가의 삶을 환기시켜주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예은 -** 저는 주변의 영향을 꽤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받거나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하고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딱! 말하기가 힘들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 그런 걸 느끼고 있었어서 주변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집 문제가 안정되면, 첫 독립,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저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아자아자 우리인생 화이팅

**정습 -** 사실 제가 약간 꼰대 기질이 있어서 옆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누군가에게 막 챙겨주고 조언해 주는걸 정말 좋아해요. 요즘은 내 주변 말고도 내 생각이나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해 좋은 점들만 모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블로그에서 글을 적고 있는 것도 있구요. 저도 약간 오지랖이 넓은 거 같아요 ㅋㅋㅋ 그게 제 자신에게 다시 만족감과 뿌듯함을 주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ㅋㅋ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군가를 도와주고 영향을 준다는 건 새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의미와 좋은 뜻으로 전달해도 결국 받아 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좋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게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참으로 어렵지만요 ㅋㅋ

위에 현선누나랑 예은이 얘기 보니까 무비크루 사람들은 다들 비슷하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참 우리 모임이 좋은 걸 느낍니다. 이걸 시작하게 만든 예은이한테 칭찬의 박수를 !

**다희 –** 저는 이런 질문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만약에 제가 죽었을 때 저를 위해 슬퍼하며 저를 추억할 사람이 누구일 지 상상하게 돼요 ㅋㅋㅋ웃기죠 뭔가 죽으면 끝이긴 하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친구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런거? 죽어서 1년에 내 생일에 한번쯤 나를 보러 올 사람 그리고 나도 그래주고 싶은 사람! 익숙함이 가장 무섭다고, 소홀했던 친한 친구들에게 한 번씩 연락하며 안부 물어보며 생각해요 아직 젊지만 막상 젊지만은 않은 나이니까 정말 건강 조심하고 노년까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안부를 묻는 감정을 저는 주고 싶고 받고 싶어요! 제 한 마디가 큰 힘은 되지 않지만 어쩌다가 생각나서 제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무비크루들도 건강하세요 건강 최고

늑대아이

1.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이며 자신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거나 반대로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아요.

* 현선: 나는 뭔가를 얘기하기 힘든 건 자신의 치부가 밝혀 지기 싫을 때 말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 ….. … 그래서 누군가 내 치부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본 책에서 “너의 엉망인 부분까지 사랑해”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주거나 받은 거는 친구랑 우리가 서로 되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낼 때 암묵적으로 믿음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 일 것 같아. 종교로 비유하자면, 종교는 우리를 믿으라고 하잖아. 누군가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할 때 나랑 다른 친구 둘과 했어. 우리 셋이 모두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a언어가 필요해. 그리고 그 언어는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야. 친구들한테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고 물었지. 그 때 그 친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를 따라오고 내가 부탁한 걸 해주고. 결과도 좋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때 이 친구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선 뭔가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여줬어. 그리고 친구들이 따라줬지.
* Q. 습. 물질적인 것과 함께 진정성이 담긴 말이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마음으로 줘야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선 마음으로 주는 것보단 현실적으로는 물질적인 걸 줘야했다고 생각했어.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선 편지와 같은 걸 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 Q. 지용. 종교는 왜 믿는 걸까? – 의지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 예은: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연인, 친구, 일적으로 믿음을 주는 게 각각 다르니까. 근데 뭐든지 믿음은 어쨌든 보여줘야 생기는 거니까…. 그냥 보여줘야 생기는 거? 연인이라면 사랑, 회사라면 능력, 친구라면 우정을 보여줘야하는 거? 평가받는 느낌인가? 평가는 아닌데, 어쨌든 뭐든지 보여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믿음에 금이 갈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해야 하는 것 같아.

\*다희: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답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

\*예은: 취준…은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을 줘야 뽑히는거니까^^..

- 정습: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치부를 꺼내기 어려워할 때 나는 내 얘기를 먼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나한테 영향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일단 믿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한 말이 나쁜 평가를 받을 때 그거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많이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직관적으로 믿는 것?

- 지용: 나는 정습이와 반대되는 것 같아. 나는 얘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드라마<스토브리그>를 봤는데, 거기 팀장이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남궁민은 그걸 파헤치려고 했어. 다른 여주인공은 10년을 일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그럴리가 없다고 얘기했고. 남궁민이 여주인공에게 다른 이유는 없냐고 물었는데 말을 못하더라구. 뭐 결국 그 사람은 비리가 있어서 퇴출됐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단지 그 사람을 봐왔다는 이유로 믿을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믿음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고 아직 잘 모르겠어.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 시기인데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건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안 걸렸을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게 조금 신기한 마음?

- 다희: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은 살짝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 나랑 단짝친구해! 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는거구요. 또 다른 예로 비트코인이 유행했을 때 믿음을 통해 화폐처럼 유통하는 게 가능했으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 부모님 모두에게도 의미를 부여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1. 우리도 좋아했던 것을 숨기게 된 경험이나, 반대로 싫어했던 것들을 좋아하게 된 경험이 있을까요?

* 지용: 좋아하던 걸 숨기게 된 적은 거의 없고 싫어했던 걸 좋아하게 된 경험은 많아. 아이돌의 경우도 처음엔 별로였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좋아진 경우가 많고. 지금은 레드벨벳을 제일 좋아하지만 처음엔 노래도 별로고, 노란 머리도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최애그룹이 됐지. 그리고 주변 사람의 경우에도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사람보다는 처음에 별로였던 사람이랑 더 친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알바할 때 일을 대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친해지고 보니 나랑 잘 맞았던 경우가 있고, 공부도 처음엔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업으로 삼고 있고. 싫어하는 걸 좋아하게 된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 정습: 좋아하는 걸 숨긴 건 별로 없고, 좋아했던 걸 싫어하게 된 경험이 있어. 초중고등학교 땐 게임을 엄청 좋아했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엔 희한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

싫어했던 걸 좋아하는 경험은 회, 닭다리 같은 냄새나는 음식을 안 좋아했는데 군대 간 이후 친구들이랑 놀다 보며 어느 순간 좋아하고 있더라고.

* 예은: 음식이 거의 그렇지 않나요? 입맛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아. 예전엔 공차 먹을 때 펄을 다 골라내서 먹었는데 지금은 두 번 추가해서 먹어요. 좋아하는걸 싫어하게 되는건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지용: 전남친들?ㅎ) 난 약간 단순해서 좋아하다가 싫어져도 다시 금방 좋아지곤 했는데 지금은 잘 안 그러려고 해요.
* 재환: 좋아했던 걸 숨기게 된 경험은 전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는 있지만 어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외국인은 처음 사귀기도 했고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으니까 말하기가 꺼려졌었어 근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밝혔는데 친구들이 재환이 광복했다고 했었어 그리고 좋아했던 걸 싫어했던 경험은 IT제품을 너무 사랑하는데 광범위적으로 말하면 4차산업을 싫어하게 됐어 개인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 이번에 AI스피커 구글꺼를 새로 사고 크롬캐스트… 그게 뭐야 쩐다 …. 취업할 곳이 너무 …힘들어졌다 알고리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고 스카이프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옛날엔 간소했는데 요즘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너무 휴대폰에 지배당하는 느낌 그리고 싫어했던 것을 좋아한 경험은 요즘은 아날로그가 너무 땡긴다 그리고 아날로그가 좋은 제일 큰 이유는 핀테크가 너무 개발되어서 결제가 너무 쉬워져서 소비 과촉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것은 운동인데 요즘은 너무 하는게 재미쏘
* 현선: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저는저는 저는 좋아했던 것을 숨기게 된 경험은 정습이가 말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호감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하기 싫은 느낌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된 경험은 고등학생 때는 가치있는 책의 기준이 고전이나 딱 있어보이는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대중을 음해하는 행위 자체가 조금 ,, 대중문학 자체가 대중이 창작한 문학이고 그 안에는 그들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아
* 다희: 정적…………………………………..마라탕 요즘 많이 먹는데 숨기고 있어요… 부끄러워…. 왜 안질리지….? 잘 질려하는 스타일인데… 전생에 중국인인가? 마라에 미쳤나??????????? 그리고 옛날에는 잔인하고 무서운거 잘안조하했느데, 요즘은 너무 좋아요. 피 사랑, 잔인함 사랑, 로맨스 ㄴㄴ. 잔인한게 최고야. 새로워. 늘 짜릿해. 슬의생도 잼더라고요.

3. 내가 아이였을 때 부모한테 바랬던 점 혹은 내가 부모가 된다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 지?

- 현선: 늑대아이가 아니여도 부모는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인격은 다 다르고, 방식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할ㅎ건데. 그래서 나는 하나한테도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아이 둘이 싸울 때 눈물이 많이 나고. 내아이가 자아를 찾아가는게 어떤 느낌이 들까? 궁금하기도 하고. 책을 하나 읽었는데, 내가 아이면 어떤 부모를 고를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이거랑 비슷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부모였다면 아이한테 계속 물어봤을 것 같다. 늑대이고 싶은지 사람이고 싶은지. 그치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심리학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을 해주고 싶다.

- 재환: 꿈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아직까지 유효한데. 내가 부모가 된다면 아마 영화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원하는 게 있으면 밀어주고, 단 나쁜 방향으로 가지는 않게 하고. 예를 들어 산속이라면 잔디는 깎아줬을 테지만,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은 스스로 하게 둘 것이다. 웹툰 윈드브레이커를 보면서도 느낀게 자식에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크면서도 부모님이 나한테 딱히 그렇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았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나를 계속 믿어주는. 그런 부모.

* 예은: 재환오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부모. 나는 알아서 하는게 좋아서.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되어서도 아마 강요하진 않을 것 같다. 나 역시도 방목형으로 자라가지구. 고딩 때는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님이 부러웠기도 했지만. 너무 방목형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만 뭘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 정습: 군대 다녀오고 나서 부모님한테 물어봤다. 나이 50을 넘게 살면서 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 다 모르겠다고 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삶의 이유가 흐릿해진 느낌. 근데 나도 왜 사는 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다가 아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또 모르겠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살아 가는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이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유를 찾는 중이다. 명시적인 것인 것 보다. 본인에 대한, 삶에 대한 본질적인 목표를 잘 찾아야 한다는 것.
* 지용: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 지 모르겠고. 나는 되게 독립적으로 키울 것 같아 외국은 독립적인 방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어 근데 이건 내 생각이고 원하는 것은 해주고 싶은데 일단 그럴만한 능력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안 해봐서 후회했던 것을 시켜보고 싶다 운동이나 수영이나 그런 예체능? 물론 애가 싫어하면 그만둬야하겠지만 애가 괜찮다고 하면 계속 시켜보는거지 뭐 그런거…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 애가 싫어하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애가 아빠한테 서스럼없이 전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희: 저는 일단 영화에 빗대어 말하면 엄마가 계속 잔잔하게 부탁했잖아. 애가 칭얼거리면 “엄마가 부탁할게” 라고 말하듯이 큰 소리 안 내고 훈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고

. 재환이처럼 아이가 하고 싶은 건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어. 어릴 때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잖아. 어릴 적에 무얼 해보고 어떤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적으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고. 열린 사고를 제시해주고 싶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맞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아이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 아 그리고 내가 좀 성장하고 싶어. 아이가 나를 본받을 수 있는? 내가 계속 머물러있으면.. 아이가 볼 수 있는건 부모니까?

4 . 주관적인 경험 아래에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애기해보고 서로의 극복과정을 공유해서 더 단단해 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다희: 학생회를 했을 때 내가 기획부장이고 나머지 팀원이 있었는데 팀원 중 한 명이 자퇴를 했다. 어떻게 할 지 고민하다 선택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나는 가요제에 집중하고 다른 팀원이 페이스북을 전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사실 자소서용이고 진짜로 극복하는건 사실 다르지 ㅎ
* 정습: 자신이 힘든걸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하면 산책을 하면서 환기시키고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그걸 잘 이용한 것 같아. 내가 만약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지키지 못했다면, 다른 환경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목적에 대해 하다 계속 막히게 됐고 환기할 필요성을 느끼고 산책하거나 다른 일을 하며 다시 목적에 집중하게됐다. 그래서 생각이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것 같다.

* 예은: 밴드 동아리를 했었는데 베이스라는 생전 처음 배워보는 악기를 맡았어요. 처음 배우는걸로 세곡을 완곡해야겠고 그저 열심히 하며 극복한 것 같다. 책임감이 있는 편이라서 수업 틈틈이 가서 연습하고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내가 베이스 부장을 할거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 현선: 저는 원래 감정이 엄청 매몰되는 편이에요 계속 매몰되어있다가 감정이 어떤 건지 발견을 하는 편 근데 문제중심적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선택지밖에 없고 벗어날 수 있는 지와 없는 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선택을 하는 요령이 생겼어요
* 재환: 이 질문 자체가 상황에 따라 되게 많은 가지수가 있는 거 같아 하나만 꼽자면 일단 나는 술을 싫어하거든 술을 잘 안 마셔 매번 술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만 항상 술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순간들이 많았어 예를 들어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 나는 나만의 시간이 참 중요해 어딜 걷든 앉아있든 카페를 가든 학과를 옮길까 말까 고민했을 때 나만의 시간을 엄청 가졌는데 나는 그 과정에서 뭘 생각하냐면 어떤 것이 미래에 더 유망할 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편이야 판단 후에 비합리적이면 선택을 안 하는 거지 인턴했을 때도 어떤 언어로 내 미래를 준비할 지 고민을 많이 했지 (현실성, 장래성)
* 지용: 저는 뻔합니다 뻔하면 하지마세요 역경이 닥치면 그냥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나는 생각보다 엄청 소심해서 엄청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만약에 관계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을 때 상대방은 1도 생각을 안하는데 나는 엄청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또 하루이틀 지나면 그냥 지나가더라구 지나고보면 되게 별 것 아니었구 그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이틀뒤면 괜찮아지겠구나 싶어